

WEBVTT

00:00:10.746 --> 00:00:12.208

안녕하세요?
반갑습니다.

00:00:12.335 --> 00:00:14.782

여러분의 역사 완성자, 류성완입니다.

00:00:14.882 --> 00:00:16.520

너무너무 반갑습니다.

00:00:16.620 --> 00:00:17.227

좋습니다.

00:00:17.327 --> 00:00:18.428

세 번째, 시간입니다.

00:00:18.528 --> 00:00:22.083

우리 지난 시간 너무나 중요한
거 한방에 짹 정리했었죠?

00:00:22.183 --> 00:00:24.594

동학농민운동, 갑오, 을미개혁.

00:00:24.694 --> 00:00:25.566

이것까지 봤고요.

00:00:25.666 --> 00:00:34.485

오늘은 독립협회, 대한제국 그리고 우리나라의
국권이 일본한테 빼앗기는 과정.

00:00:34.585 --> 00:00:39.811

이러한 것들에 대해서
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39.911 --> 00:00:45.767

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벌써 역사라는
과목을 가르친 지 10년이 지났죠?

00:00:45.867 --> 00:00:49.935

종종 딱 이 파트
내지는 일제강점기,

00:00:50.035 --> 00:00:52.554

이걸 수업하다 보면
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

00:00:52.654 --> 00:00:56.038

선생님, 전 우리나라 역사
너무 짜증 나요, 싫어요.

00:00:56.138 --> 00:00:57.187

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.

00:00:57.287 --> 00:01:01.566

그래서 왜 그러냐, 그렇게 이야기하면
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1:01.666 --> 00:01:04.879

아니, 맨날 힘없어서 빼앗기고

00:01:04.979 --> 00:01:09.519
우리가 싫어하는 일본한테 맨날
뭘 빼앗겼다, 뭘 빼앗겼다.

00:01:09.619 --> 00:01:11.975
그런 역사 우리가 꼭
배워야 합니까?

00:01:12.075 --> 00:01:15.134
너무 짜증 나요,
싫어요, 그러더라고요.

00:01:15.234 --> 00:01:17.472
여러분이 만약에 교사인데

00:01:17.572 --> 00:01:22.654
어떤 맹랑한 학생이 와서
그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.

00:01:22.754 --> 00:01:25.514
어떠시겠습니까?

00:01:25.614 --> 00:01:29.910
그런데 이거를 약간 강압적으로
누르는 게 아니라

00:01:30.010 --> 00:01:32.167
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
대답하고 싶은 거예요.

00:01:32.267 --> 00:01:35.213
그래서 제가 뭐라고
그랬는지 아세요?

00:01:35.313 --> 00:01:40.770
OO아, 나도 강동원으로
태어나고 싶었어.

00:01:40.870 --> 00:01:43.381
나도 원빈이고 싶었다고.

00:01:43.481 --> 00:01:45.328
모든 남자가 다 그렇지 않아?

00:01:45.428 --> 00:01:49.402
만약에 여자였으면 김태희나
전지현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지.

00:01:49.502 --> 00:01:53.033
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?

00:01:53.133 --> 00:01:56.908
이렇게 냉혹하잖아.

00:01:57.008 --> 00:02:00.299
그렇지만 나의 삶이 가치가 없니?

00:02:00.399 --> 00:02:04.995
선생님은 뒤늦게까지 운동하다가

고등학교 때 그만두고

00:02:05.095 --> 00:02:06.847

대학교 가겠다고 수능
3번이나 쳤어.

00:02:06.947 --> 00:02:10.670

그리고 나서 교사 되고 또 외부
활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.

00:02:10.770 --> 00:02:13.208

너 무엇보다 내 역사 잘 알잖아?

00:02:13.308 --> 00:02:14.860

나의 삶이 가치가 없니?

00:02:14.960 --> 00:02:17.945

내가 강동원이 아니라고 해서,
원빈이 아니라고 해서?

00:02:18.045 --> 00:02:19.911

장동건이 아니라고 해서?

00:02:20.011 --> 00:02:21.410

그런 거 아니지.

00:02:21.510 --> 00:02:23.436

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거와 같아.

00:02:23.536 --> 00:02:27.186

우리나라 역사가 맨날 빼앗기는 역사가
많았던 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.

00:02:27.286 --> 00:02:33.098

그렇지만 그 빼앗기는 과정에서
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했다는 그러한

00:02:33.198 --> 00:02:38.396

전 세계 유일의 저항의 역사를
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야.

00:02:38.496 --> 00:02:44.446

찬란하게 빛나진 않았을지 몰라도
후배들한테 또 후세들한테

00:02:44.546 --> 00:02:47.986

부끄러움 없이 전달할 수
있는 그 역사를 난 배웠고

00:02:48.086 --> 00:02:50.754

그 역사를 너한테
전달해주고자 한다.

00:02:50.854 --> 00:02:54.675

왜? 우리 역사가 이래도 가치가 없니?
라고 했는데

00:02:54.775 --> 00:02:58.126

내가 생각해도 너무 말을 잘한 거야.

00:02:58.226 --> 00:02:59.160

그렇지 않습니까?

00:02:59.260 --> 00:03:01.370
여러분, 우리 역사는 그렇습니다.

00:03:01.470 --> 00:03:03.170
우리가 빼앗기기만 했다면

00:03:03.270 --> 00:03:07.247
전 사실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
전달하기 몹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.

00:03:07.347 --> 00:03:12.015
그런데 빼앗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
저항했었던 그런 저항의 역사.

00:03:12.115 --> 00:03:15.951
찬란하게 빛나진 않았을지
몰라도 끊임없이 저항하면서

00:03:16.051 --> 00:03:18.302
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

00:03:18.402 --> 00:03:23.208
그러한 투쟁의 역사가 우리
한국사입니다, 우리 근현대사예요.

00:03:23.308 --> 00:03:25.848
아프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

00:03:25.948 --> 00:03:29.843
바로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
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

00:03:29.943 --> 00:03:30.696
먼저 가볼게요.

00:03:30.796 --> 00:03:32.377
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
거 한번 정리합시다.

00:03:32.520 --> 00:03:36.575
일단 재미는 없지만 정말 많이
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?

00:03:36.675 --> 00:03:40.326
1차 갑오개혁, 2차 갑오개혁,
을미개혁을 구분하는 문제예요.

00:03:40.426 --> 00:03:42.434
이건 스토리도 없고
아무것도 없어요.

00:03:42.534 --> 00:03:45.714
그런데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
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?

00:03:45.814 --> 00:03:49.198
30일에 학교 가면 훈시
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간다.

00:03:49.298 --> 00:03:50.791
이게 2차 갑오개혁이라고 했었죠?

00:03:50.891 --> 00:03:53.167
그래서 학교 간다고
했으니까 교육입국 조서.

00:03:53.267 --> 00:03:55.926
30일이라는 거는
7+23이라고 했었죠?

00:03:56.026 --> 00:03:58.471
중앙을 7부, 지방을
23부로 나눴다.

00:03:58.571 --> 00:04:01.996
30일에 학교 가면
교육입국 조서 있었고요.

00:04:02.096 --> 00:04:04.395
그다음에 훈시 듣지 않고,
훈련대, 시위대.

00:04:04.495 --> 00:04:07.896
이거 2차 갑오개혁 때
만들어졌었다라고 했었고요.

00:04:07.996 --> 00:04:09.593
그다음에 재판소 견학 간다.

00:04:09.693 --> 00:04:11.625
지방 재판소가 설치되었다.

00:04:11.725 --> 00:04:20.435
그뿐만 아니라 독립서고문이라든가
홍범 14조.

00:04:20.535 --> 00:04:23.400
이런 것들이 2차 갑오개혁이고
나머지는 다 1차다.

00:04:23.500 --> 00:04:24.355
기억나십니까?

00:04:24.455 --> 00:04:27.441
그래서 여기 나왔었던 거
8아문 설치됐었다.

00:04:27.541 --> 00:04:31.116
궁내부 설치되었었다,
은본위 화폐제도, 재정일원화,

00:04:31.272 --> 00:04:33.867
도량형 통일, 조세의
금납화, 신분제 폐지.

00:04:33.967 --> 00:04:35.325
이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

00:04:35.425 --> 00:04:37.989
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

건 신분제 폐지입니다.

00:04:38.089 --> 00:04:40.514

노비제도 없어지면서
우리나라 안에서

00:04:40.614 --> 00:04:45.540

완벽한 신분제적 법적 평등이
오게 되었다는 거.

00:04:45.640 --> 00:04:47.168

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04:47.268 --> 00:04:48.570

이게 전부 다 1차입니다.

00:04:48.670 --> 00:04:51.302

그런데 제가 암기 팁을 알려드리면

00:04:51.402 --> 00:04:55.969

1차보다는 2차를 기억하시는 게
훨씬 이해하기 편하다고 했었죠?

00:04:56.069 --> 00:05:00.266

이거 30일에 학교 가면 혼시
듣지 않고 재판소 견학 갈 거야.

00:05:00.366 --> 00:05:02.035

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죠?

00:05:02.135 --> 00:05:06.936

그래서 30일, 이게 7+23
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.

00:05:07.036 --> 00:05:09.778

학교 가면.
학교, 교육입국 조서.

00:05:09.878 --> 00:05:13.184

한성사범학교랑 외국어학교
관계 만들어졌었고요.

00:05:13.284 --> 00:05:16.692

혼시 듣지 않고 훈련대, 시위대.

00:05:16.792 --> 00:05:20.663

재판소 견학 간다, 이거 정도
기억해두시고 나머지는 다 1차다.

00:05:20.763 --> 00:05:22.148

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

00:05:22.248 --> 00:05:24.973

을미개혁은 그거보다는 훨씬
더 편하다고 했었죠?

00:05:25.073 --> 00:05:30.190

건양이라는 연호 그다음에
친위대, 진위대.

00:05:30.290 --> 00:05:31.821

이건 사실 거의 안 물어보고요.

00:05:31.921 --> 00:05:34.549

중요한 건 여기 사회
파트 많이 물어보죠.

00:05:34.649 --> 00:05:36.534

그래서 우편 사무가
다시 시작되었었다.

00:05:36.634 --> 00:05:39.006

종두법 시행되었다, 태양력.

00:05:39.157 --> 00:05:40.523

태양력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.

00:05:40.623 --> 00:05:43.105

그다음에 소학교 설립되었다,
단발령 시행되었었다.

00:05:43.205 --> 00:05:46.047

이게 을미개혁의 주된
내용이라는 거.

00:05:46.147 --> 00:05:47.815

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

00:05:47.915 --> 00:05:50.161

여러분, 학교에서 이 파트가 나오면

00:05:50.261 --> 00:05:52.360

이거 시험 문제에 안
내려야 안 낼 수가 없어요.

00:05:52.460 --> 00:05:57.584

1차 갑오개혁, 2차 갑오개혁, 3차
갑오개혁이라고도 하는 을미개혁.

00:05:57.684 --> 00:06:02.139

이거 전반적으로 다 기억해주셨으면
좋겠습니다, 되셨죠?

00:06:02.239 --> 00:06:02.794

좋습니다.

00:06:02.894 --> 00:06:09.426

그러면 오늘은 1896년으로
여러분을 초대합니다.

00:06:09.526 --> 00:06:11.949

1895년의 상황이 어땠는지

00:06:12.049 --> 00:06:14.734

우리 간단히 다시 한번
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.

00:06:14.834 --> 00:06:18.368

1895년에 시모노세키조약이라는
조약이 있었다고 그랬죠?

00:06:18.468 --> 00:06:23.263

이 시모노세키조약은 뭐에 대한
중전 조약이라고 했었습니까?

00:06:23.363 --> 00:06:28.836
청일전쟁에 대한 중전
조약이었었고요.

00:06:28.936 --> 00:06:30.329
주된 내용이 뭐였었죠?

00:06:30.429 --> 00:06:34.286
청나라가 일본에게 배상금
지불할뿐만 아니라 타이완.

00:06:34.386 --> 00:06:35.659
거기에 랴오둥반도.

00:06:35.759 --> 00:06:38.822
랴오둥반도 위치 기억하십니까?

00:06:38.922 --> 00:06:41.731
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.

00:06:47.013 --> 00:06:49.999
여기에서 어디?
여기.

00:06:50.099 --> 00:06:53.799
이게 랴오둥반도예요.

00:06:53.899 --> 00:06:54.686
기억나시죠?

00:06:54.786 --> 00:06:58.385
이 랴오둥반도를 일본에 넘기기로
하니까 이때 누가 간섭해온다?

00:06:58.485 --> 00:07:01.452
삼국간섭.
삼국에서는 누구? 러시아.

00:07:01.552 --> 00:07:02.949
프랑스, 독일 불려서

00:07:03.049 --> 00:07:07.254
야, 인마 청나라 덩치 큰 애들이
이거 빼앗기면 얼마나 힘든데.

00:07:07.354 --> 00:07:11.108
다시 돌려줘! 라고 했더니 일본
애들이 이 악물면서 돌려주죠.

00:07:11.208 --> 00:07:14.670
그래서 삼국이 간섭해오니까
요동을 반환 해버린다고.

00:07:14.770 --> 00:07:15.699
특히 러시아.

00:07:15.799 --> 00:07:19.976
그렇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친러화

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었고

00:07:20.076 --> 00:07:25.930

그거에 따른 일본이
아주 악당 짓을 하죠.

00:07:26.030 --> 00:07:27.109

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

00:07:27.209 --> 00:07:30.481

우리의 국모를 시해하는
그러한 모습이 있었다.

00:07:30.581 --> 00:07:36.769

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 위협을
느꼈던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한다.

00:07:36.869 --> 00:07:41.112

아관파천에서 이 아라는 건
아라사국이라고 했었죠?

00:07:41.212 --> 00:07:44.644

러시아를 이야기합니다.
러시아관, 공사관으로.

00:07:44.778 --> 00:07:49.042

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치자면
대사관으로 파천, 장소를 옮겼다.

00:07:49.142 --> 00:07:50.171

숙소를 옮겼다는 거예요.

00:07:50.271 --> 00:07:51.995

러시아로 간 거 아닙니다.

00:07:52.095 --> 00:07:54.610

우리나라 안에 있는 러시아
공사관으로 간 거예요.

00:07:54.710 --> 00:07:56.610

또 이걸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.

00:07:56.710 --> 00:08:00.290

선생님, 그런데 이때 러시아
공사관으로 왜 갑니까?

00:08:00.390 --> 00:08:05.493

그만큼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
때문에 아무리 일본이라 하더라도

00:08:05.593 --> 00:08:10.827

러시아 공사관이나 대사관으로는 자객이나
이런 것들을 보낼 수 없었거든요.

00:08:10.927 --> 00:08:12.371

신변의 안전을 위해서
그랬던 거예요.

00:08:12.471 --> 00:08:15.258

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돌아오죠?

00:08:15.358 --> 00:08:17.306
1897년에 돌아오거든요.

00:08:17.406 --> 00:08:21.068
그래서 이 기간,
1896년에서 97년.

00:08:21.168 --> 00:08:23.514
이 기간을 우리는
무엇이라고 합니까?

00:08:23.614 --> 00:08:28.407
열강의 이권침탈이 아주 극에 달했던
시기다, 라고 이야기합니다.

00:08:28.507 --> 00:08:29.774
당연하겠죠, 왜요?

00:08:29.874 --> 00:08:31.554
국가 입장에서 보면
어머니 돌아가셨죠?

00:08:31.654 --> 00:08:33.144
아버지 지금 집에 안 계시죠?

00:08:33.244 --> 00:08:35.783
그렇게 되면 그 열강들이
우리나라 안에서

00:08:35.883 --> 00:08:38.605
가져갈 수 있는 이권을
전부 다 가져가는.

00:08:38.705 --> 00:08:41.469
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

00:08:41.569 --> 00:08:46.037
그때쯤 서재필.
선생님, 서재필 들어봤어요!

00:08:46.137 --> 00:08:47.640
그렇죠?
언제라고 했었죠?

00:08:47.740 --> 00:08:49.827
갑신정변 5인방 중에
막내였었잖아요.

00:08:49.927 --> 00:08:53.510
갑신정변 때 19살이었거든요.

00:08:53.610 --> 00:08:55.364
이제 불과 12,
13년 정도 지났죠?

00:08:55.506 --> 00:08:57.773
그러니까 한 30살
조금 넘었겠네요.

00:08:57.873 --> 00:09:01.587
이 서재필이 일본에 갔다가

미국으로 가게 되는데

00:09:01.687 --> 00:09:05.261

우리나라 출신으로는 최초로
서양 의사 라이선스를 얻어요.

00:09:05.361 --> 00:09:06.495

서양 의사였었어요.

00:09:06.595 --> 00:09:08.840

그런데 다시 국내로 돌아옵니다.

00:09:08.940 --> 00:09:12.078

이 서재필에 대해서는
참 애매합니다.

00:09:12.178 --> 00:09:15.757

어떤 사람들은 우리 독립신문 만들면서
독립 협회의 주된 역할을 한,

00:09:15.857 --> 00:09:18.853

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가다,
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

00:09:18.953 --> 00:09:20.696

몇몇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다.

00:09:20.796 --> 00:09:26.815

서재필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떠나면서
그가 했던 말이 뭐라고 했나면

00:09:26.915 --> 00:09:28.155

우리나라가 위급해서

00:09:28.255 --> 00:09:31.504

선생님,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서
노력해주십시오, 라고 하니까

00:09:31.604 --> 00:09:37.192

귀국의 일은 귀국들이 알아서 하시오,
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.

00:09:37.325 --> 00:09:39.929

미국명으로는 필립
제이슨이라고 하는데요.

00:09:40.055 --> 00:09:43.439

어쨌든 이러한 서재필에
대해서 비판하는.

00:09:43.539 --> 00:09:45.648

독립신문할 때나 독립 협회할 때

00:09:45.748 --> 00:09:48.576

자신의 돈이라든가 지원을
전혀 하지 않았다.

00:09:48.676 --> 00:09:53.842

이렇게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
분들도 어쨌든 있긴 합니다.

00:09:53.942 --> 00:09:55.637

이건 뭐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

00:09:55.737 --> 00:09:57.753

여러분이 알아서
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.

00:09:57.853 --> 00:10:01.289

저는 그걸 전달하는 입장에서,
서재필이 다시 돌아와요.

00:10:01.389 --> 00:10:04.168

미국 의사 출신이었던
서재필이 돌아와서

00:10:04.268 --> 00:10:10.615

내가 다 하지 못했었던 우리나라
민족의 무엇을 다시 해야 되겠다?

00:10:10.715 --> 00:10:13.109

계몽시켜주는 것을
다시 해야 되겠다.

00:10:13.209 --> 00:10:18.269

민중의 계몽이 중요하더라는
생각이 들어서 와서 신문을 먼저 만듭니다.

00:10:18.369 --> 00:10:19.653

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는
친구들 있어.

00:10:19.753 --> 00:10:21.542

독립협회가 만들어주고

00:10:21.642 --> 00:10:25.194

독립신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
친구들 있는데, 아닙니다.

00:10:25.294 --> 00:10:28.821

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
그다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.

00:10:28.921 --> 00:10:31.081

시간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.

00:10:31.181 --> 00:10:32.496

독립신문 만들어졌습니다.

00:10:32.596 --> 00:10:37.010

그러면 계몽시킨다잖아요,
민중을 계몽시킨대요.

00:10:37.110 --> 00:10:41.993

기존에 무지의 단계에서 이제는 깨우침의
단계로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?

00:10:42.093 --> 00:10:45.022

그러려면 어떻게 해요?
사람들한테 지식을 보급해야 되겠죠?

00:10:45.122 --> 00:10:47.644

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
신문을 만들었던 거예요.

00:10:47.744 --> 00:10:50.689

그러면 이 신문은 어떻게
만들었어야 될까요?

00:10:50.789 --> 00:10:53.921

예전에 어려운 한자 섞어가면서?
NO.

00:10:54.021 --> 00:10:58.596

어떻게? 민중한테 읽히게 하기 위해서
순한글 신문으로 만들어졌고요.

00:10:58.750 --> 00:11:01.097

뿐만 아니라 그가
미국 유학과 아닙니까?

00:11:01.197 --> 00:11:06.785

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가 가진
생각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

00:11:06.885 --> 00:11:08.829

영문판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.

00:11:08.929 --> 00:11:12.063

그래서 순한글판도 있었고
영문판도 있었다는 거.

00:11:12.163 --> 00:11:14.250

그리고 나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요.

00:11:14.350 --> 00:11:19.526

참고로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
98년까지 있었고요.

00:11:19.626 --> 00:11:24.882

여기서 말하는 독립이 대한독립
만세 할 때 그 독립일까요?

00:11:24.982 --> 00:11:25.944

아닙니다.

00:11:26.044 --> 00:11:28.066

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그
독립이랑 좀 달라요.

00:11:28.166 --> 00:11:31.252

이건 말 그대로 홀로
바로 선다는 내용이에요.

00:11:31.352 --> 00:11:35.303

지금 열강들이 우리에게 이권도
가져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

00:11:35.403 --> 00:11:39.801

그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자,
라는 거에 대한 독립이에요.

00:11:39.901 --> 00:11:44.864

그러면 우리가 3.1 운동 때
했었던 대한독립만세는 뭘니까?

00:11:44.964 --> 00:11:46.845
일제야 떠나가라, 이거잖아요.

00:11:46.945 --> 00:11:48.883
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한 반대잖아요.

00:11:48.983 --> 00:11:53.217
이것은 뭐? 세계 열강들로부터
우리가 자주적인.

00:11:53.317 --> 00:11:56.309
우리 스스로의 힘으로
바로 서자, 라는 운동이

00:11:56.409 --> 00:12:00.667
이 독립협회라는 거 꼭
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12:00.767 --> 00:12:05.361
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에 대한
사대하는 정신들이 우리가 많았는데

00:12:05.461 --> 00:12:06.538
그것을 거부하죠.

00:12:06.638 --> 00:12:11.141
청나라 사신들이 오갈 때
이용했던 문이 있었대요.

00:12:11.278 --> 00:12:17.189
그런 걸 영은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
뭔가 우리가 청나라의 밑의 나라.

00:12:17.289 --> 00:12:19.881
그러한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?

00:12:19.981 --> 00:12:23.671
그래서 그걸 흘뜨려버리고
우리 바로 서자, 라고 하는

00:12:23.771 --> 00:12:27.447
의미를 담은 독립문을 만들었고
이 독립문은 지금도 있습니다.

00:12:27.547 --> 00:12:30.953
그다음에 청나라 사신들이 왔으면
머물렀던 숙소가 있는데

00:12:31.053 --> 00:12:32.552
그걸 모화관이라고 하거든요.

00:12:32.652 --> 00:12:35.199
모화관을 허물고 거기에 독립관이라는

00:12:35.299 --> 00:12:39.414
나름 자주 독립적인
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

00:12:39.514 --> 00:12:41.110
이게 바로 독립문이에요.

00:12:41.210 --> 00:12:44.943
아마 여러분, 서울 사는
친구들은 3호선 타고

00:12:45.043 --> 00:12:47.670
독립문 역에 내리시면
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

00:12:47.770 --> 00:12:49.022
생각보다 꽤 큼니다.

00:12:49.122 --> 00:12:50.560
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.

00:12:50.660 --> 00:12:54.143
독립 협회는 청에 대한
자주독립을 상징하는 의미로

00:12:54.243 --> 00:12:58.761
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
헐고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웠냐?

00:12:58.861 --> 00:13:04.818
립문 립문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
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13:04.918 --> 00:13:05.943
되셨고요.

00:13:06.043 --> 00:13:09.146
그러면 이 독립협회가 어떤
일을 했는지에 대해서

00:13:09.246 --> 00:13:10.884
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3:10.984 --> 00:13:13.914
독립협회, 이건 말들이
좀 어려워요.

00:13:14.014 --> 00:13:17.296
자주 국권, 자유
민권, 자강 개혁.

00:13:17.430 --> 00:13:20.633
대부분 참고서나 이런 거
보면 이렇게 말하는데

00:13:20.733 --> 00:13:23.912
여러분, 이런 거 너무 외우려고

00:13:24.012 --> 00:13:27.202
이게 자강 개혁에 들어가냐 자유 민권에
들어가냐 자주 국권에 들어가냐

00:13:27.302 --> 00:13:28.452
이런 거 때문에 헷갈리는데

00:13:28.552 --> 00:13:30.585

이런 거로는 시험 문제에
거의 안 나옵니다.

00:13:30.685 --> 00:13:32.041

그러면 선생님, 뭐가 나오는데요?

00:13:32.141 --> 00:13:35.650

이런 게 나와요.

00:13:35.803 --> 00:13:40.084

그러니까 너무 용어에
매몰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.

00:13:40.184 --> 00:13:43.640

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
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.

00:13:43.740 --> 00:13:47.595

1896년 고종이 아관파천기에
독립협회가 만들어졌죠?

00:13:47.695 --> 00:13:48.570

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?

00:13:48.670 --> 00:13:51.063

열강들의 이권침탈이
만했던 시기라고 했었죠?

00:13:51.163 --> 00:13:52.831

열강이 우리나라 이권이 빼앗아갈 때

00:13:52.931 --> 00:13:55.771

그것을 버티는 그러한 단체가
있었을 거 아닙니까?

00:13:55.871 --> 00:13:57.846

그게 바로 뭐예요?
독립협회였어요.

00:13:57.946 --> 00:14:00.468

그러니까 뭐?
우리의 이권.

00:14:00.568 --> 00:14:03.136

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
안에서 이권을 가져갈 때

00:14:03.236 --> 00:14:04.816

그것을 막아내는 운동을 했다고요.

00:14:04.916 --> 00:14:06.946

그게 바로 뭐예요?
이권 수호운동이에요.

00:14:07.046 --> 00:14:12.301

이권 수호운동은 특히 러시아로부터
이 이권을 많이 지켜냅니다.

00:14:12.401 --> 00:14:16.618

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군사

재정 고문을 파견하게 되었는데

00:14:16.718 --> 00:14:18.594
그거를 철수시키기도 했었고요.

00:14:18.694 --> 00:14:22.598
그다음에 한러은행, 한국과
러시아의 합작은행이 있었는데

00:14:22.698 --> 00:14:24.226
그것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.

00:14:24.326 --> 00:14:26.131
그다음에 시험 문제에
제일 많이 나오는 건

00:14:26.231 --> 00:14:29.392
절영도 조차 요구를 거부한다.

00:14:29.492 --> 00:14:31.652
절영도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,

00:14:31.752 --> 00:14:36.000
부산 앞에 가면 영도
앞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?

00:14:36.100 --> 00:14:38.799
아마 부산 지역에 사는
친구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.

00:14:38.899 --> 00:14:41.755
그 영도가 이 절영도예요.

00:14:41.855 --> 00:14:43.891
과거에는 이걸 절영도라고
했는데 앞에 절 자를 빼고

00:14:43.991 --> 00:14:47.020
지금은 영도라고 불리는
부산 앞에 있는 섬입니다.

00:14:47.120 --> 00:14:49.300
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있죠.

00:14:49.400 --> 00:14:52.575
이 섬을 조차,
조차라는 말이 뭐냐면

00:14:52.675 --> 00:14:56.774
외국한테 우리의 땅을 떼어주는 거.

00:14:56.936 --> 00:14:57.960
이런 걸 조차라고 그래요.

00:14:58.060 --> 00:15:01.985
일정 기간 50년, 100년 이런
기간 동안 외국한테 떼어주는 거.

00:15:02.085 --> 00:15:04.184
홍콩이나 이런 것들이
다 조차지입니다.

00:15:04.284 --> 00:15:08.576
홍콩은 청나라가 아편전쟁 이후

00:15:08.676 --> 00:15:11.916
난징조약에서 영국한테
빼어줬던 게 홍콩이잖아요.

00:15:12.016 --> 00:15:16.585
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
영국이 대신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.

00:15:16.685 --> 00:15:18.904
그걸 조차, 많이 요구해와요.

00:15:19.047 --> 00:15:20.785
압박 가해오는데 그것을
버텼습니다.

00:15:20.885 --> 00:15:23.313
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
물어봐요, 여러분.

00:15:23.413 --> 00:15:28.520
시험 문제 볼 때 이권 수호
운동으로 우리 절영도 조차 요구를

00:15:28.647 --> 00:15:30.501
이권 수호 운동으로 버텼었다.

00:15:30.601 --> 00:15:35.155
뿐만 아니라 프랑스, 독일 등이
광산채굴권 같은 것들을 요구해오는데

00:15:35.255 --> 00:15:38.038
그것도 막아내는 역할을
했었다고 합니다.

00:15:38.138 --> 00:15:39.851
특히 그중에서도 러시아.

00:15:39.951 --> 00:15:43.234
아주 똑똑한 친구들이
이런 질문을 하죠.

00:15:43.334 --> 00:15:48.077
아니, 이때 우리나라에 이권을
노렸던 건 러시아뿐만 아니라

00:15:48.177 --> 00:15:52.410
주변에 미국도 있고 여러
나라가 있었을 텐데

00:15:52.510 --> 00:15:56.410
왜 유독 러시아에 대해서만
이렇게 경계를 합니까?

00:15:56.510 --> 00:15:58.284
그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야.

00:15:58.384 --> 00:16:02.382

실제로 그게 바로 이권 수호운동을
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

00:16:02.482 --> 00:16:06.459

어떻게 저게 러시아에 이권에
대해서만 너무 집중했다고

00:16:06.588 --> 00:16:09.152

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

00:16:09.252 --> 00:16:11.538

그렇게 이권 수호운동은
주로 어디에?

00:16:11.638 --> 00:16:14.750

이 러시아에 집중되어있었다는
거 봐주셨으면 좋겠고

00:16:14.850 --> 00:16:18.563

자유 민권, 이 당시
조선 시대 때만 하더라도

00:16:18.663 --> 00:16:20.762

여러분, 그 지역에서
살인사건 이런 거 나잖아요.

00:16:20.862 --> 00:16:21.916

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?

00:16:22.016 --> 00:16:23.349

과학수사, 이런 거 없어요.

00:16:23.449 --> 00:16:26.854

얼굴 가장 거칠게 무섭게
생긴 애 잡아다 놓고

00:16:26.954 --> 00:16:29.206

항아리 깨 놓고 거기 무릎
꿇려놓고 네가 죽었지?

00:16:29.337 --> 00:16:32.173

한 100번 물어보면 내가 죽었어요,
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예요.

00:16:32.273 --> 00:16:33.674

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.

00:16:33.774 --> 00:16:35.236

그래서 어떻게?
신체 자유.

00:16:35.336 --> 00:16:36.896

함부로 속박할 수 없다.

00:16:36.996 --> 00:16:39.197

그다음에 재산권 보호,
이런 것도 있었어요.

00:16:39.297 --> 00:16:43.332

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
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

00:16:43.432 --> 00:16:45.785

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.

00:16:45.885 --> 00:16:48.059

중요한 건 이 자강개혁 파트.

00:16:48.159 --> 00:16:51.660

특히 민중을 바로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.

00:16:51.760 --> 00:16:53.770

그러니까 이런 거죠.

00:16:53.870 --> 00:16:57.726

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

00:16:57.826 --> 00:17:02.616

학생들의 인권이 있는지 몰랐어요.

00:17:02.716 --> 00:17:05.374

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지만

00:17:05.474 --> 00:17:10.211

그냥 맞아서 아프다, 똑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, 수업 잘 들어야 되겠다.

00:17:10.329 --> 00:17:11.672

이 생각만 있었던 거지

00:17:11.772 --> 00:17:14.693

어떻게 같은 인격체대 인격체인데

00:17:14.793 --> 00:17:17.425

저 교사는 이렇게 우리한테 매질하는 거야?

00:17:17.525 --> 00:17:20.552

왜 체벌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야? 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.

00:17:20.652 --> 00:17:22.801

왜 그래?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.

00:17:22.901 --> 00:17:27.191

이게 21세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

00:17:27.291 --> 00:17:29.688

그런 것들이 사실 완벽하게 나타나지 못했어요.

00:17:29.788 --> 00:17:32.528

하여튼 제 학창 시절은 20세기였지만 그랬었다고.

00:17:32.679 --> 00:17:34.710

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

00:17:34.810 --> 00:17:40.395

선생님들이 욕을 한다든가 작게라도
체벌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세대죠.

00:17:40.495 --> 00:17:45.021

그게 옳고 그르냐, 이걸 이야기하는 게
아니라 인식적으로 그렇게 됐다고.

00:17:45.121 --> 00:17:49.730

지금은 친구 간에서도 그런
게 나오면 법정으로도 가고

00:17:49.830 --> 00:17:54.722

너는 나에게 피해를 줬다,
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잖아요.

00:17:54.822 --> 00:17:57.276

조선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?
없었겠죠.

00:17:57.376 --> 00:17:59.097

그러니까 민중이 이걸
깨우친 거예요.

00:17:59.197 --> 00:18:01.278

요즘에 학생들도 그렇게 된 거죠.

00:18:01.378 --> 00:18:07.147

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자녀
수를 많이 낳다가 줄어들게 되면서

00:18:07.300 --> 00:18:10.623

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에
따른 문제도 있긴 하지만

00:18:10.759 --> 00:18:15.349

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 현상
속에서 우리가 살아 가고 있잖아요.

00:18:15.449 --> 00:18:16.808

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?

00:18:16.908 --> 00:18:19.372

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

00:18:19.472 --> 00:18:24.237

우리 민중의 힘을 우리가 국가에
내세울 방법이 별로 없어.

00:18:24.337 --> 00:18:25.766

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?

00:18:25.866 --> 00:18:28.381

공동으로 모여서 집단토론회
같은 걸 한다고요.

00:18:28.481 --> 00:18:31.816

그게 뭐예요?
만민공동회였어요.

00:18:31.916 --> 00:18:34.070

여러 사람을 모아놓고
네 생각은 어떠냐,

00:18:34.170 --> 00:18:36.046

내가 세우고 싶은
나라는 이래야 된다,

00:18:36.146 --> 00:18:38.949

네가 세우고 싶은 나라란 뭔데?

00:18:39.049 --> 00:18:43.249

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
이야기하는 만민공동회가 있었던 거죠.

00:18:43.349 --> 00:18:45.845

이게 수십차례 있었어요.

00:18:45.945 --> 00:18:50.004

많은 사람이 모여서
백정 출신, 박성춘.

00:18:50.104 --> 00:18:52.633

이런 사람도 나와서
이야기도 하고 했던 거죠.

00:18:52.733 --> 00:18:55.579

천민 출신이 나와서
이야기하다 보니까

00:18:55.679 --> 00:19:01.282

정말로 세상이 많이
바뀐 걸 느꼈던 거겠죠?

00:19:01.411 --> 00:19:04.123

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.

00:19:04.223 --> 00:19:09.857

보통 역사에서 이 관이 나오면
국가기관을 이야기합니다.

00:19:09.957 --> 00:19:11.600

관리, 공무원이잖아요.

00:19:11.700 --> 00:19:16.158

그 관리들, 국가의 고종도
이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

00:19:16.258 --> 00:19:21.093

관리와 민들이 모여서 관민공동회라는
걸 열기로 했어요.

00:19:21.193 --> 00:19:22.220

이건 중요하죠.

00:19:22.320 --> 00:19:27.013

여러 차례의 만민공동회 끝에 국가에서도
관심을 갖고 관리를 보내서

00:19:27.113 --> 00:19:29.280

같이 공동회를 열었습니다.

00:19:29.380 --> 00:19:33.352
그러니까 국가의 고위관료들과 일반
민중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죠.

00:19:33.452 --> 00:19:35.438
그걸 관민공동회라고 하고요.

00:19:35.538 --> 00:19:39.205
여기서 채택되었던 것이
바로 헌의 6조예요.

00:19:39.305 --> 00:19:42.150
독립협회 나오면 늘 나오는 게
바로 이 헌의 6조입니다.

00:19:42.250 --> 00:19:44.409
잠시 뒤에 자료도
한번 살펴볼 텐데요.

00:19:44.509 --> 00:19:46.312
이 헌의 6조 핵심이 이겁니다.

00:19:46.412 --> 00:19:49.137
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.

00:19:49.237 --> 00:19:50.536
이거 꼭 기억해두세요.

00:19:50.636 --> 00:19:57.081
그러면 당시에 고종황제 입장에서는
이걸 좋아했을까요, 싫어했을까요?

00:19:57.181 --> 00:20:00.541
조선 시대 때 정치체제를
우리가 뭐라고 그러죠?

00:20:00.641 --> 00:20:01.935
전제 군주제.

00:20:02.035 --> 00:20:05.235
왕인 군주가 모든 힘을 다
가지고 있는 거예요.

00:20:05.335 --> 00:20:07.070
그러면 입헌군주제는 뭐죠?

00:20:07.170 --> 00:20:15.640
이 입헌군주제는 지금의 일본이라든가
영국처럼 군주는 있어요.

00:20:15.740 --> 00:20:18.100
상징적인 입장에서의 군주는 있어요.

00:20:18.200 --> 00:20:22.702
그런데 실제 정치는 어떻게 의해서?
법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.

00:20:22.802 --> 00:20:24.354
관리들이 하는 거예요.

00:20:24.454 --> 00:20:25.641

총리가 하는 것이죠.

00:20:25.741 --> 00:20:28.967

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정치적 실권을
총리가 가지고 있잖아요.

00:20:29.067 --> 00:20:31.272

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랑
비슷했던 거예요.

00:20:31.372 --> 00:20:33.495

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
입헌군주제가 아니죠.

00:20:33.595 --> 00:20:34.969

군주가 일단 없잖아.

00:20:35.069 --> 00:20:38.142

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
같은 체제는 뭐라고 합니까?

00:20:38.242 --> 00:20:40.030

공화제라고 합니다.

00:20:40.130 --> 00:20:41.846

어쨌든 고종한테 그런 거예요.

00:20:41.946 --> 00:20:43.307

지금 세상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?

00:20:43.407 --> 00:20:48.315

당신은 그냥 입헌군주로서 평생 좋은
말만 들으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.

00:20:48.415 --> 00:20:52.183

정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아서
할게요, 라는 체제죠.

00:20:52.283 --> 00:20:53.869

여기서 이게 강조됩니다.

00:20:53.969 --> 00:20:55.637

이거 기억해두셔야 돼요.

00:20:55.737 --> 00:20:56.554

이거 나오고요.

00:20:56.654 --> 00:20:58.290

그다음에 피고의 인권이 강조되었다.

00:20:58.390 --> 00:21:01.172

이거 잠시 뒤에 헌의 6조
보여드리면서 나올 텐데요.

00:21:01.272 --> 00:21:04.576

이 헌의 6조에서 피고의 인권.

00:21:04.676 --> 00:21:10.207

그러니까 죄를 지은

것으로 보이는 사람.

00:21:10.307 --> 00:21:12.552
죄인은 아니죠, 죄인은 최종
판결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.

00:21:12.692 --> 00:21:14.727
그러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
다 피고 아니에요?

00:21:14.827 --> 00:21:18.219
그 피고들이 예전 조선 시대
때는 장난 아니었거든요.

00:21:18.319 --> 00:21:22.448
팔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
쇠 뜨겁게 해서 지지고.

00:21:22.548 --> 00:21:26.538
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,
라는 피고의 인권이 강조되었었다.

00:21:26.638 --> 00:21:28.340
이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.

00:21:28.440 --> 00:21:30.796
하나 더, 의회설립 운동.

00:21:30.896 --> 00:21:35.036
이 의회설립 운동 때문에 바로 이
입헌군주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.

00:21:35.136 --> 00:21:41.847
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의
영국, 일본, 덴마크.

00:21:41.947 --> 00:21:43.634
이런 데는 왕이 있습니다.

00:21:43.734 --> 00:21:47.398
왕이 있지만, 실제적인
정치는 총리가 하는 거죠.

00:21:47.498 --> 00:21:49.741
그러면 총리는 어디서 뽑아요?
의회에서 뽑잖아요.

00:21:49.841 --> 00:21:52.460
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?
내각책임제라고 하죠.

00:21:52.560 --> 00:21:54.170
그런데 우리나라 그런
체제랑 다르죠.

00:21:54.270 --> 00:21:55.997
보통 정치 형태가 크게
두 개가 있어요.

00:21:56.097 --> 00:21:58.308
입헌군주제, 공화제.

00:21:58.408 --> 00:22:01.916

그러면 이 입헌군주제는 내각책임제라는
정치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.

00:22:02.016 --> 00:22:08.747

공화제는 대통령제라는 그런
정치 형태를 갖게 됩니다.

00:22:08.847 --> 00:22:14.594

어쨌든 이 의회를 설립해서
고종은 명예를 인정해주고

00:22:14.694 --> 00:22:17.156

정치는 실제로 의회에서
하자는 거잖아요.

00:22:17.256 --> 00:22:19.703

그래서 중추원 관제라는
걸 선포합니다.

00:22:19.803 --> 00:22:23.068

이 중추원이라는 게 지금
우리나라의 국회예요.

00:22:23.168 --> 00:22:24.712

의회, 국회.
같은 겁니다.

00:22:24.812 --> 00:22:29.089

그래서 국가에서 추천하는
사람 25명과

00:22:29.189 --> 00:22:34.276

일반민들이 뽑은 25명들이
지금의 국회의원처럼 활동하자.

00:22:34.376 --> 00:22:38.810

여기서 법안도 만들고 실제 정치를
해나가자, 라고 했던 것입니다.

00:22:38.910 --> 00:22:42.236

그런데 이렇게 여러분, 새로운
정치 형태가 나오게 되면

00:22:42.336 --> 00:22:46.162

기존에 있었던 관리들 입장에서는
이게 좋을까요, 싫을까요? 싫지.

00:22:46.262 --> 00:22:47.641

자신들 힘 빼앗길 텐데?

00:22:47.741 --> 00:22:48.613

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

00:22:48.713 --> 00:22:49.724

고종을 꼬드겨요.

00:22:49.824 --> 00:22:51.897

고종, 입헌 군주제?
웃기지 마.

00:22:51.997 --> 00:22:56.932

웃기지 마, 이거 당신 몰아내고
애네 공화제 하려고 하는 거야.

00:22:57.032 --> 00:22:59.865

뽑아놓고 자기들끼리 자신의 군주
뽑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.

00:22:59.965 --> 00:23:03.375

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! 기존의
관리들이 이렇게 이간질을 해요.

00:23:03.475 --> 00:23:04.406

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

00:23:04.506 --> 00:23:12.151

고종이 황국협회라는 보부상
단체를 시켜서 이쪽에 있었던,

00:23:12.251 --> 00:23:15.585

만민공동회나 이런 일을 할 때
탄압을 하게 됩니다.

00:23:15.685 --> 00:23:18.250

즉 고종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.

00:23:18.350 --> 00:23:23.484

그렇게 되면서 이 운동이 1898년도에
끝나게 되었었다는 거.

00:23:23.584 --> 00:23:27.618

황국협회를 시켜서 이렇게 됐다는
것도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23:27.718 --> 00:23:29.158

이게 만민 공동회입니다.

00:23:29.258 --> 00:23:32.742

여기 보면 주장하고자 하는
사람들이 쭉 나와 있고요.

00:23:32.842 --> 00:23:36.551

도시에서 상인, 학생, 기생
등 익명의 대중들이 모여

00:23:36.651 --> 00:23:42.064

토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한국
최초의 근대적 대중 집회였다.

00:23:42.164 --> 00:23:43.732

이거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23:43.832 --> 00:23:45.315

이게 헌의 6조입니다.

00:23:45.415 --> 00:23:48.362

헌의 6조는 관민공동회에서
채택됐다고 했었죠?

00:23:48.462 --> 00:23:51.397

무엇을 지향하고 있다?
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.

00:23:51.497 --> 00:23:52.576
그런데 한번 볼게요.

00:23:52.676 --> 00:23:56.708
1번, 외국인에게 의지하지
아니하고 관민이 합심하여

00:23:56.808 --> 00:23:58.632
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.

00:23:58.732 --> 00:24:00.864
선생님, 잘못 말씀하셨네요.

00:24:00.964 --> 00:24:03.179
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이라요.

00:24:03.279 --> 00:24:05.326
이거 전제군주제 아닙니까?

00:24:05.426 --> 00:24:07.665
아니예요, 저를 믿으세요.

00:24:07.791 --> 00:24:09.064
입헌군주제입니다.

00:24:09.164 --> 00:24:12.205
그러면 이 전제 황권을 공고히
할 것, 이건 뭐예요?

00:24:12.305 --> 00:24:15.634
이건 고종한테 당신의 힘
우리가 더 인정해드릴게요.

00:24:15.734 --> 00:24:17.687
당신은 명예롭게 더
사세요, 라는 정도의

00:24:17.787 --> 00:24:19.262
약간 립서비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.

00:24:19.362 --> 00:24:22.201
실질적으로는 절대 전제
황권을 볼 수 없습니다.

00:24:22.301 --> 00:24:23.480
한번 볼게요.

00:24:23.580 --> 00:24:27.915
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
조약과 각 대신과.

00:24:28.015 --> 00:24:29.047
여기가 핵심이죠.

00:24:29.147 --> 00:24:32.094
중추원 의장이 함께 서명할 것.

00:24:32.194 --> 00:24:33.490

이거 뭐예요?

00:24:33.590 --> 00:24:36.963

지금의 중추원, 우리나라에서
국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

00:24:37.063 --> 00:24:40.497

그래서 계약이라든가
조약 같은 것을 할 때

00:24:40.597 --> 00:24:42.464

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
누가 하자는 거예요?

00:24:42.564 --> 00:24:44.585

국회 동의를 받아야
된다는 거잖아요.

00:24:44.685 --> 00:24:46.039

이게 입헌군주제죠.

00:24:46.139 --> 00:24:48.681

이 2번이 더 중요한
거예요, 아셨죠?

00:24:48.781 --> 00:24:51.636

이거 전제군주제 아닙니다,
입헌군주제입니다.

00:24:51.736 --> 00:24:53.044

3번입니다.

00:24:53.144 --> 00:25:00.236

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
예산,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할 것.

00:25:00.336 --> 00:25:04.293

중대한 범죄는 반드시 재판하되,
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.

00:25:04.393 --> 00:25:05.959

역시 이것도 많이 나오죠.

00:25:06.059 --> 00:25:09.434

그래서 이 헌의 6조에서 제일
중요한 건 2조랑 4조예요.

00:25:09.534 --> 00:25:13.212

피고의 인권까지 강조했었다는
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25:13.312 --> 00:25:14.069

5조입니다.

00:25:14.169 --> 00:25:19.301

칙임관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
동의하면 임명할 것 나와 있고요.

00:25:19.401 --> 00:25:21.476

6조,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.

00:25:21.576 --> 00:25:22.588
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

00:25:22.688 --> 00:25:24.403
이게 헌의 6조.
어디서 만들어졌다고?

00:25:24.503 --> 00:25:28.676
독립협회가 주도했었던
관민공동회의 결과로 나왔던 게

00:25:28.776 --> 00:25:31.212
헌의 6조라는 거
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25:31.312 --> 00:25:35.649
독립협회는 어떤 단체의 탄압으로?
황국협회.

00:25:35.749 --> 00:25:43.539
전국의 보부상 단체의 탄압으로 끝나게
되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25:43.639 --> 00:25:50.538
1년 넘게 러시아 공사관에 처소를
하고 있었던 고종이 다시 돌아옵니다.

00:25:50.638 --> 00:25:51.857
97년도에 돌아와요.

00:25:51.957 --> 00:25:53.642
그러니까 좀 민망하잖아요.

00:25:53.742 --> 00:25:55.703
그래서 뭐합니까?
야, 나 개혁 한번 해볼게.

00:25:55.803 --> 00:26:00.093
기존의 왕 말고 정말로 제대로
한번 해볼게, 라고 하게 되면서

00:26:00.193 --> 00:26:01.378
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.

00:26:01.478 --> 00:26:03.466
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왕이 아니라

00:26:03.566 --> 00:26:06.723
독립적인 나라인 황제라고
칭하게 됩니다.

00:26:06.823 --> 00:26:08.169
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?

00:26:08.269 --> 00:26:09.656
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.

00:26:09.756 --> 00:26:13.410
그리고 이 고종은
황제가 되었습니다.

00:26:13.510 --> 00:26:16.702
광무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00:26:16.802 --> 00:26:19.272
구분, 신참이에요.

00:26:19.372 --> 00:26:20.556
구분, 신참.

00:26:20.656 --> 00:26:25.771
이거 당시에 청나라에서는
무슨 운동이 있었냐면

00:26:25.871 --> 00:26:30.310
양무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.

00:26:30.410 --> 00:26:34.504
이 양무운동에서
추진했었던 바가 뭐냐면

00:26:34.604 --> 00:26:38.394
소울, 동양이 기존에 가지고
있었던 정치 형태.

00:26:38.494 --> 00:26:41.989
그들의 소울은 우리 것이 좋아.

00:26:42.089 --> 00:26:44.420
이게 뭐예요?
동도.

00:26:44.520 --> 00:26:46.644
그렇지만 딱 보니까 싸움은
재네가 잘하는 거 같아.

00:26:46.744 --> 00:26:48.461
과학기술이나 이런 건
나은 거 같아.

00:26:48.561 --> 00:26:50.731
서양의 기술은
받아들이자, 라는 거.

00:26:50.831 --> 00:26:51.822
이게 동도서기론이에요.

00:26:51.922 --> 00:26:54.037
이게 양무운동에서
실시했던 그 내용인데요.

00:26:54.137 --> 00:26:57.074
그거랑 비슷합니다.
어떻게?

00:26:57.174 --> 00:27:00.242
구분, 옛날 것을 본으로 삼아.

00:27:00.342 --> 00:27:02.760
옛날 것을 본으로 삼자라는 게 뭐야?
정치 형태.

00:27:02.860 --> 00:27:04.839

특히 왕권을 강화하는 거.

00:27:04.939 --> 00:27:06.165

이게 문제가 있었죠.

00:27:06.265 --> 00:27:11.736

기존에는 왕권이 약해지면서 민권이 올라가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는데

00:27:11.836 --> 00:27:14.080

이거는 다시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.

00:27:14.180 --> 00:27:20.290

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한청 통상조약 맺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제 반포했다.

00:27:20.390 --> 00:27:21.699

이거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.

00:27:21.799 --> 00:27:23.343

이거 무조건 황권 강화입니다.

00:27:23.443 --> 00:27:25.741

고종의 힘은 무조건 짱, 이런 거예요.

00:27:25.841 --> 00:27:29.340

그다음에 이범윤이라는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기도 했었고요.

00:27:29.440 --> 00:27:35.085

행정적으로는 23도에서, 23도라는 건 어디 나왔던 거죠?

00:27:35.185 --> 00:27:38.843

23부, 2차 갑오개혁 때 지방 행정제도 정리하죠?

00:27:38.943 --> 00:27:40.798

그것을 13도로 바꿉니다.

00:27:40.898 --> 00:27:44.349

물론 이거는 광무개혁 이전에 바뀌요, 96년도에.

00:27:44.449 --> 00:27:47.494

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넣어놨고요.

00:27:47.594 --> 00:27:50.267

군사적으로는 원수부를 설치하게 되면서

00:27:50.367 --> 00:27:54.584

당시 국내에 있는 군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시다.

00:27:54.684 --> 00:27:58.056

이것까지는 구본이에요.

00:27:58.156 --> 00:28:05.173
신참이라 함은 경제.

00:28:05.273 --> 00:28:07.496
경제 파트, 이제는 새로운 것.

00:28:07.596 --> 00:28:09.718
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
거 아닙니까?

00:28:09.818 --> 00:28:13.163
새로운 것을 참고하여
받아들인다는 내용이거든요.

00:28:13.263 --> 00:28:14.342
이게 구본 신참이에요.

00:28:14.442 --> 00:28:16.199
동도서기랑 똑같습니다.

00:28:16.299 --> 00:28:19.253
보통 과학기술, 상업, 이런
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.

00:28:19.353 --> 00:28:23.823
경제 파트에서는 양전사업을
실시해서 지계를 발급했다.

00:28:23.923 --> 00:28:27.122
여러분, 지계에 형광펜.

00:28:27.222 --> 00:28:30.039
지계를 발급했다.

00:28:30.139 --> 00:28:34.507
지계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자면
근대적 토지 소유권이에요.

00:28:34.607 --> 00:28:39.339
지금은 여러분, 저 땅 누구 거야, 라고
할 때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되죠.

00:28:39.439 --> 00:28:41.567
조선 시대 때는 그런 거 있었을까요?
없었어요.

00:28:41.667 --> 00:28:43.154
조선 시대 때는 저거 누구 땅이야?
그러면

00:28:43.305 --> 00:28:44.218
저거 류 씨 땅이지.

00:28:44.318 --> 00:28:45.975
저게 류 씨 땅이에요?
근거 있소?

00:28:46.075 --> 00:28:48.508
저거 류 씨 아버지가
농사지었어요.

00:28:48.608 --> 00:28:50.925

그러면 그 아버지는
어떻게 농사지었는데?

00:28:51.025 --> 00:28:53.268

그 아버지의 아버지가
농사지었으니까 그렇지.

00:28:53.368 --> 00:28:55.249

그러니까 저게 누구
땅이냐고, 근거는?

00:28:55.349 --> 00:28:56.721

그냥 저거 류 씨 땅이에요!

00:28:56.821 --> 00:28:58.106

마을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.

00:28:58.206 --> 00:29:00.631

그러니까 보통 문서도 없고
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29:00.731 --> 00:29:05.068

땅을 사고 파는데도 그냥 문서도
없이 하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.

00:29:05.168 --> 00:29:07.860

그러다 보니까 그러지
말고 지금으로 치자면

00:29:07.960 --> 00:29:09.657

등기부 등본 제도 만들어준 거예요.

00:29:09.757 --> 00:29:11.511

그래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에 대해서

00:29:11.611 --> 00:29:13.827

이 땅 네 땅이야, 하면서
문서를 준 거라고.

00:29:13.927 --> 00:29:16.610

이걸 뭐라고 해?
지계라고 해.

00:29:16.710 --> 00:29:23.000

그래서 이것을 근대적
토지소유증서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29:23.100 --> 00:29:26.919

뿐만 아니라 근대적 회사라든가
근대적 공장도 만들었었고요.

00:29:27.019 --> 00:29:29.937

사회적으로는 해외에
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었고

00:29:30.037 --> 00:29:35.450

새로운 문물인 전차나 기차 등을 만들고
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.

00:29:35.550 --> 00:29:36.621

이거 꼭 기억하세요.

00:29:36.721 --> 00:29:40.201

고종이 황제가 되었었고
광무개혁으로

00:29:40.301 --> 00:29:44.403

구분, 신참이라는 전체적인
움직임으로 갔었습니다.

00:29:44.503 --> 00:29:46.472

환구단과 황궁우 한번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9:46.572 --> 00:29:49.629

고종이 황제 즉위식을
여기서 했어요.

00:29:49.729 --> 00:29:53.085

지금도 종로 가시면 여러분,
조선 호텔이라고 있거든요.

00:29:53.185 --> 00:29:54.437

거기 바로 앞에 이게 있습니다.

00:29:54.582 --> 00:29:57.461

고종은 환구단을 세우고
황제로 즉위하였다.

00:29:57.598 --> 00:30:04.992

이를 통해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
보여주고자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.

00:30:05.092 --> 00:30:09.366

그래서 원래는 이 환구단이라는 건
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.

00:30:09.466 --> 00:30:15.224

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황제 즉위식을
거행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30:15.324 --> 00:30:16.595

이게 대한민국 국제입니다.

00:30:16.695 --> 00:30:22.628

대한민국 국제는 제1조, 대한민국은 세계
만국의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.

00:30:22.728 --> 00:30:26.688

제2조, 대한국의 정치는
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

00:30:26.788 --> 00:30:29.477

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
전제 정치이다.

00:30:29.577 --> 00:30:33.558

전제 정치라는 건 왕 중심으로,
황제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.

00:30:33.658 --> 00:30:37.419

대한국 대황제, 즉 고종황제는
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.

00:30:37.519 --> 00:30:42.795

대한국 대황제는 육, 해군을 통솔하고
군대의 편제를 정하고 계엄을 명한다.

00:30:42.895 --> 00:30:44.225

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한다.

00:30:44.325 --> 00:30:47.710

대황제 대황제는 각 부서의 관제를 정하고
행정에 필요한 칙령을 공포한다.

00:30:47.861 --> 00:30:48.784

대한국 대황제는 ~.

00:30:48.884 --> 00:30:52.272

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한국
대황제는, 대한국 대황제는 나오면

00:30:52.372 --> 00:30:54.689

바로 대한국 국제입니다.

00:30:54.789 --> 00:30:57.586

고종은 독립 협회를 해산시킨 이후

00:30:57.686 --> 00:31:03.037

1899년 대한 제국의 국가
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은

00:31:03.137 --> 00:31:08.627

9개 조의 대한국 국제를 제정,
반포하여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 국가이며,

00:31:08.727 --> 00:31:09.763

여기가 핵심이죠?

00:31:09.863 --> 00:31:16.231

황제의 권한이 무한함을 강조하였다고
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

00:31:16.331 --> 00:31:18.966

이게 바로 지계입니다.

00:31:20.341 --> 00:31:25.189

지계는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
문서로 지계의 발급은

00:31:25.289 --> 00:31:29.536

국가가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한
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죠?

00:31:29.636 --> 00:31:35.386

근대적 토지 소유증명서라는 거
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31:35.486 --> 00:31:36.855

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
문제 풀다 보면

00:31:36.955 --> 00:31:40.001

아마 학교 문제 푸실 때
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.

00:31:40.101 --> 00:31:44.194

그래서 앞에 것은 당연히
바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.

00:31:44.294 --> 00:31:47.905

개혁 정강 14개조
나오면 갑신정변이구나.

00:31:48.005 --> 00:31:51.889

폐정개혁 12개조 나오면
동학농민운동이구나.

00:31:51.989 --> 00:31:54.518

홍범 14조 나오면
2차 갑오개혁이구나.

00:31:54.618 --> 00:31:57.944

헌의 6조 나오면 독립협회구나.

00:31:58.044 --> 00:32:00.189

그다음에 대한국 국제
나오면 광무개혁.

00:32:00.289 --> 00:32:03.116

즉 대한제국이구나, 이렇게
봐주셨으면 좋겠고요.

00:32:03.250 --> 00:32:06.885

개혁 정강 14개 조에서
특징적인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?

00:32:06.985 --> 00:32:11.540

일단은 제정을 통합한다.

00:32:11.640 --> 00:32:16.077

그리고 되게 혁신적인 거 많이
있었는데 문제는 지조법 개혁.

00:32:16.177 --> 00:32:19.265

토지제도가 아니라 세금
제도를 정리하게 되면서

00:32:19.365 --> 00:32:24.260

민중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
실패했었다는 거 있었고요.

00:32:24.360 --> 00:32:27.550

폐정개혁 12개 조는 토지를
평균화하여 분작한다.

00:32:27.650 --> 00:32:31.827

그다음에 과부의 재가를
허용한다, 신분제 폐지한다.

00:32:31.927 --> 00:32:33.578

이런 거 들어갔다고 했었고요.

00:32:33.678 --> 00:32:37.789
홍범 14조는 내용적인 건 별거
없었다,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었던다.

00:32:37.889 --> 00:32:41.172
그다음에 현의 6조는 2개
정도 중요하다고 했었죠?

00:32:41.272 --> 00:32:42.927
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.

00:32:43.027 --> 00:32:44.110
그다음에 하나 더 뭐 있었다고요?

00:32:44.210 --> 00:32:47.260
피고의 인권에 대해서
언급이 되었었다.

00:32:47.360 --> 00:32:48.492
대한국 국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

00:32:48.592 --> 00:32:50.347
대한국 황제는 짱,
대한국 황제는 짱,

00:32:50.447 --> 00:32:52.483
대한국 황제는 짱,
대한국 황제는 짱.

00:32:52.583 --> 00:32:54.792
이것만 기억해주시면
되겠습니다, 되셨죠?

00:32:54.892 --> 00:32:57.697
이 파트에서 5개 나오거든요.

00:32:57.797 --> 00:33:01.904
그래서 이 용어들은 꼭
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33:02.004 --> 00:33:04.526
됐고요.

00:33:04.626 --> 00:33:12.872
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
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

00:33:12.972 --> 00:33:14.889
국권 피탈 과정, 침탈 과정.

00:33:14.989 --> 00:33:16.170
이거 한번 들어가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3:16.270 --> 00:33:17.283
다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.

00:33:17.383 --> 00:33:18.971
1895년입니다.

00:33:19.071 --> 00:33:20.430
시모노세키조약이 있었지요.

00:33:20.530 --> 00:33:21.895
삼국간섭이 있었습니니다.

00:33:21.995 --> 00:33:23.367
을미사변이 있었죠.

00:33:23.467 --> 00:33:26.066
을미사변에 대해서
우리가 저항했을까요?

00:33:26.166 --> 00:33:27.086
의병이 있었다고 했죠?

00:33:27.186 --> 00:33:29.957
이 의병은
총 세 차례가 있었습니니다.

00:33:30.057 --> 00:33:32.192
어떤 의병, 어떤 의병,
어떤 의병이요?

00:33:32.292 --> 00:33:35.165
을미의병이 있었지요.

00:33:35.265 --> 00:33:42.270
그다음에 을사의병이 있었고
정미의병이 있었다.

00:33:42.370 --> 00:33:47.697
이렇게 세 차례의 의병이 있었다는
거,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33:47.797 --> 00:33:49.315
되셨죠?

00:33:49.415 --> 00:33:51.242
그러면 이 을미사변.

00:33:51.342 --> 00:33:53.779
을미사변은 우리나라 국모가
시해당한 사건 아닙니까?

00:33:53.879 --> 00:33:57.231
이것으로 인해 일어났던 게
을미의병이 되겠는데요.

00:33:57.331 --> 00:34:02.121
일단 첫 번째, 을미의병
배경의 두 가지.

00:34:02.221 --> 00:34:05.348
국모 시해, 거기다가
을미개혁에서 뭐가 나왔었다?

00:34:05.448 --> 00:34:07.727
단발령이 나왔었다.

00:34:07.827 --> 00:34:10.169

지금은 여러분, 전 머리
자르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.

00:34:10.269 --> 00:34:12.934
저도 약간 짧은 머리
유지하고 있고요.

00:34:13.034 --> 00:34:15.584
그리고 보기와 다르게 전
씻는 걸 몹시 좋아해요.

00:34:15.718 --> 00:34:20.481
겨울철에도 하루에 샤워를
무조건 두 번 가까이하고요.

00:34:20.581 --> 00:34:22.440
여름에는 몇 번씩 합니다.

00:34:22.540 --> 00:34:25.069
집에 있는데 조금 땀
났다 싶으면 무조건.

00:34:25.169 --> 00:34:33.472
전 개인적으로 씻는 거에 대해선
약간 깔끔한 생각이 있고

00:34:33.616 --> 00:34:34.773
제 와이프보다 제가 훨씬
더 많이 씻거든요.

00:34:34.873 --> 00:34:38.924
그래서 제 와이프는
제가 이렇게 하는 걸

00:34:39.024 --> 00:34:41.197
되게 병적이다 할
정도로 이야기하는데

00:34:41.297 --> 00:34:43.437
중요한 건 저는 씻으면
되게 기분이 좋아져요.

00:34:43.569 --> 00:34:46.114
그래서 씻는 걸 좋아하는데
저는 그런 점에서

00:34:46.214 --> 00:34:48.470
조선 시대에 안 태어난
게 너무 좋아요.

00:34:48.570 --> 00:34:52.222
여러분, 조선 시대 남자들
얼마나 씻었을 것 같습니까?

00:34:52.322 --> 00:34:54.677
머리 감는 게 1년에 한두 번?

00:34:54.777 --> 00:34:56.964
그리고 머리 묶고 있잖아요.

00:34:57.064 --> 00:35:00.550

기름에 뚫히고 장난
아니었을 겁니다.

00:35:00.650 --> 00:35:01.516
이 집합소였을 거야.

00:35:01.616 --> 00:35:03.135
정말 간지러웠을 것 같아.

00:35:03.235 --> 00:35:06.444
저는 개인적으로 머리
자르고 하는 게

00:35:06.544 --> 00:35:10.498
위생적인 차원에서도
좋다고 생각하는데요.

00:35:10.598 --> 00:35:13.836
당시에 조선 시대, 유생들한테

00:35:13.936 --> 00:35:18.780
지금 우리처럼 머리 자르라고
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.

00:35:18.880 --> 00:35:21.014
뭐? 부모가 물려준 걸 잘라?

00:35:21.114 --> 00:35:23.077
아니, 그러면 손톱도 자르지 말지.

00:35:23.177 --> 00:35:24.751
그런데 손톱은 자르잖아요.

00:35:24.851 --> 00:35:27.537
어쨌든 머리카락에 대해서
너무 중요하게 여겨서

00:35:27.637 --> 00:35:30.516
차라리 내 목을 쳐, 라고
하면서 반말을 합니다.

00:35:30.616 --> 00:35:34.970
그래서 유생층인 이소응, 유인석
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요.

00:35:35.070 --> 00:35:38.939
그리고 동학이 끝나고 나서
전봉준 같은 사람은 잡혔지만

00:35:39.039 --> 00:35:44.900
남아있었던 그 잔여세력들이
여기 을미의병에 참여합니다.

00:35:45.000 --> 00:35:49.108
그런데 정말로 의병 한번
제대로 일으켜보려고 하는데

00:35:49.208 --> 00:35:52.600
고종이 그러지 마,
너네 다칠 것 같아.

00:35:52.700 --> 00:35:59.864
제발 좀 해산해주면 안 될까?
라고 고종이 해산 권고를 하니까

00:35:59.964 --> 00:36:05.507
왕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
해산하자, 라고 해서 해산해버려요.

00:36:05.607 --> 00:36:08.131
해산 권고를 받고 해산해버리는
게 을미의병이었습니다.

00:36:08.231 --> 00:36:10.737
잠시 뒤에 을사의병도 말씀드릴게요.

00:36:10.837 --> 00:36:15.694
그리고 어쨌든 이때
삼국간섭으로 인해서

00:36:15.794 --> 00:36:18.257
일본이 요동반도를 다시
청나라에 반환하고

00:36:18.357 --> 00:36:20.149
배상금을 서너 배
받았었다고 했었죠?

00:36:20.249 --> 00:36:23.762
그리고 나서 10년 동안
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.

00:36:23.862 --> 00:36:29.872
1903년에 용암포 지역에서
러시아와 일본이 살짝 대결하는,

00:36:29.972 --> 00:36:32.852
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
분위기가 있었어요.

00:36:32.952 --> 00:36:36.297
1903년에 전쟁이 일어날
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으니까

00:36:36.397 --> 00:36:40.310
우리나라에서는 싸우지도 않았는데
먼저 중립을 선언해요.

00:36:40.410 --> 00:36:42.432
너희 지금 싸울 것 같은데
너네 싸운다 하더라도

00:36:42.532 --> 00:36:45.941
우리는 누구 편도 들지 않을
거야, 라고 중립을 선언하고요.

00:36:46.041 --> 00:36:50.050
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이 그해
초에 터지게 되었습니다.

00:36:50.150 --> 00:36:56.079
러일 전쟁은 지금도 일본인들이

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전쟁입니다.

00:36:56.179 --> 00:36:58.507

우리 입장에서든 되게
안타까운 전쟁이었고

00:36:58.607 --> 00:37:03.890

지금도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
충격적인 전쟁 중의 하나가

00:37:03.990 --> 00:37:05.481

바로 러일 전쟁입니다.

00:37:05.581 --> 00:37:09.921

왜 그랬냐, 제가 나라가
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

00:37:10.021 --> 00:37:12.209

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
남북 분단국이고

00:37:12.309 --> 00:37:15.951

우리나라의 군사력은 괜찮잖아요.

00:37:16.051 --> 00:37:23.177

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나
아메리카 국가랑 싸워서 졌다고 해보세요.

00:37:23.277 --> 00:37:27.513

우리나라가 우간다, 이런 나라랑
싸워서 졌다고 해봅시다.

00:37:27.613 --> 00:37:29.698

되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?

00:37:29.798 --> 00:37:33.191

당시의 유럽 사람들에게
일본이 그런 존재였어요.

00:37:33.291 --> 00:37:36.510

그런데 유럽 내에서도 막강한
힘을 가지고 있었던

00:37:36.610 --> 00:37:38.668

러시아랑 싸워서 일본이
이긴 거예요.

00:37:38.768 --> 00:37:40.503

그래서 지금은 아니죠.

00:37:40.603 --> 00:37:43.537

저도 지난달에 해외에 강연이 있어서

00:37:43.637 --> 00:37:50.653

벨기에 가는 김에 네덜란드, 프랑스
잠깐 들려서 왔다 오기도 했었는데

00:37:50.753 --> 00:37:54.310

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
해외여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

00:37:54.410 --> 00:37:58.931
보통 동양 사람들이 가면 주로
뭐라고 많이 물어보는지 아세요?

00:37:59.031 --> 00:38:00.138
중국인이냐고 많이 물어봐요.

00:38:00.238 --> 00:38:02.133
왜 그리냐면 너무 많이
와요, 중국 애들은.

00:38:02.293 --> 00:38:05.345
그냥 일단 수적으로
당해낼 수가 없어, 중국은.

00:38:05.445 --> 00:38:09.920
그런데 한 1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
대학생들이 해외 나가게 되면

00:38:10.020 --> 00:38:11.322
하나 같이 다 뭐라고
물어봤는지 아세요?

00:38:11.422 --> 00:38:13.426
Japanese? 라고 물어봐요.

00:38:13.526 --> 00:38:18.648
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동양인은
다 그냥 일본이었던 거예요.

00:38:18.748 --> 00:38:22.758
그만큼 러일 전쟁이 주었던 쇼크가

00:38:22.858 --> 00:38:26.669
당시 서양 유럽 사회에서는
엄청나게 있었습니다.

00:38:26.769 --> 00:38:30.506
물론 이것은 러시아랑 일본이랑
그냥 맞짱 붙은 거 아니에요?

00:38:30.659 --> 00:38:32.450
사실은 일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?

00:38:32.550 --> 00:38:34.181
영국과 미국이 있었습니다.

00:38:34.281 --> 00:38:36.152
그렇긴 하지만 어쨌든.

00:38:36.252 --> 00:38:38.078
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.

00:38:38.178 --> 00:38:41.732
그러다가 2월에 일본이
우리나라한테 강제하는 게 있어요.

00:38:41.832 --> 00:38:43.407
한일의정서를 강제해요.

00:38:43.507 --> 00:38:48.022

러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
시작하거든요.

00:38:48.122 --> 00:38:52.430
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 땅을 임의로

00:38:52.530 --> 00:38:55.606
일본이 전쟁 과정에서
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

00:38:55.706 --> 00:38:58.150
그해 8월에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.

00:38:58.250 --> 00:39:02.021
제1차 한일협약.

00:39:02.121 --> 00:39:05.830
을사조약의 원래 정식 명칭이
제2차 한일협약이거든요.

00:39:05.930 --> 00:39:08.968
제1차 한일 협약은 1904년
8월에 있었습니다.

00:39:09.068 --> 00:39:11.214
여기에서는 고문 정치가
시행되었다고 하는데

00:39:11.314 --> 00:39:14.754
여기서 말하는 고문이 아냐!
이거 아니야.

00:39:14.872 --> 00:39:15.946
그 고문 아니야.

00:39:16.046 --> 00:39:17.648
그 고문이 아니라 어떤 고문입니까?

00:39:17.748 --> 00:39:21.692
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자문해주게
되면서 압력을 가한다.

00:39:21.792 --> 00:39:24.613
저분이 우리 회사 고문이야,
이런 분들 있죠?

00:39:24.713 --> 00:39:26.103
그 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39:26.203 --> 00:39:28.437
그래서 이때 왔던 고문이
둘이 있습니다.

00:39:28.537 --> 00:39:32.359
첫째, 재정 고문이었던
일본인 메가타.

00:39:32.459 --> 00:39:35.352
그다음에 외교 고문이었던
미국인 스티븐스.

00:39:35.452 --> 00:39:36.820
이 둘 다 문제가 있어요.

00:39:36.920 --> 00:39:39.397
왜 그러냐면 그다음 해인
1905년에 메가타라는 분이

00:39:39.497 --> 00:39:41.980
우리나라에 와서
화폐 정리사업을 해요.

00:39:42.080 --> 00:39:45.072
일본에서 당시 바꿨던 화폐가
있는데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

00:39:45.172 --> 00:39:48.729
우리나라 화폐를 완전히
잠식시켜버려요, 금융을.

00:39:48.829 --> 00:39:51.572
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힘들게
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.

00:39:51.672 --> 00:39:53.376
스티븐스, 애는 미국인인데요.

00:39:53.476 --> 00:39:54.896
쓰레기예요.

00:39:54.996 --> 00:39:59.362
왜 그러냐면 스티븐스가
와서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

00:39:59.462 --> 00:40:01.162
일본이 대우를 좀 잘해줬겠죠?

00:40:01.262 --> 00:40:03.405
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간
다음에 뭐라고 하나면

00:40:03.505 --> 00:40:08.877
내가 봤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계
해서 일본 애들이 지배하는 게 맞다.

00:40:08.977 --> 00:40:12.340
그리고 조선인들도 좋아하고
일본인들도 좋아한다.

00:40:12.440 --> 00:40:16.027
저거는 당연히 일본이
조선을 지배해야 된다.

00:40:16.127 --> 00:40:17.575
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.

00:40:17.675 --> 00:40:20.580
이런 말 들으면 화 안 나요?
난 나는데.

00:40:20.680 --> 00:40:23.538
어떻게 합니까?

찾아가지, 또 우리 조선 청년들이.

00:40:23.638 --> 00:40:26.598

그의 운명은 잠시 뒤에 다시
한번 보시면 되겠고요.

00:40:26.698 --> 00:40:31.078

그리고 이렇게 제1차 한일협약이
1904년도에 있었고요.

00:40:31.178 --> 00:40:37.770

그리고 1905년이 되면서 러일 전쟁에서
누가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?

00:40:37.870 --> 00:40:41.051

일본이 유리한 상황에
놓이게 되었습니다.

00:40:41.151 --> 00:40:45.214

그렇게 되자 일본, 한번 보세요.

00:40:49.520 --> 00:40:58.491

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을
보면, 여기 청나라가 있죠?

00:40:58.591 --> 00:41:01.311

여기 일본이 있죠.

00:41:01.411 --> 00:41:04.545

여기 러시아가 있고요.

00:41:04.645 --> 00:41:08.711

이쪽으로 거문도까지
점령했었던 영국도 있고요.

00:41:08.811 --> 00:41:12.911

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최초로 서양식
조약을 맺었던 미국도 있습니다.

00:41:13.011 --> 00:41:16.562

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다
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?

00:41:16.662 --> 00:41:18.529

일본이 한나라,
한나라씩 정리합니다.

00:41:18.629 --> 00:41:21.451

일본이 청나라랑 싸워서 이기죠.

00:41:21.551 --> 00:41:23.206

이게 바로 청일 전쟁이죠?

00:41:23.306 --> 00:41:26.125

그랬더니 러시아가 우리나라에
간섭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?

00:41:26.225 --> 00:41:29.535

그래서 러시아랑 삼국간섭으로 사이 안
좋다가 10년 동안 전쟁 준비하는데요.

00:41:29.635 --> 00:41:34.955

이때 영국과 미국한테 지원을
받기로 약속합니다.

00:41:35.055 --> 00:41:36.714

그리고 나서 붙은 거예요.

00:41:36.814 --> 00:41:42.505

그래서 이 러시아를 처리하고
이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서

00:41:42.605 --> 00:41:45.129

우리나라가 식민통치에
들어가게 되는.

00:41:45.229 --> 00:41:46.521

이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요.

00:41:46.621 --> 00:41:49.926

이건 사실 전체적으로 여러분도
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.

00:41:50.026 --> 00:41:52.570

이토 히로부미라는
사람이 짠 거예요.

00:41:52.670 --> 00:41:58.368

거기에 보시면 일본과 러시아와의
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

00:41:58.500 --> 00:42:02.307

1905년 7월에 미국과
협상을 하나 맺습니다.

00:42:02.407 --> 00:42:03.690

그런데 몰래 조약을 맺어요.

00:42:03.790 --> 00:42:06.273

그걸 뭐라고 하나면 가쓰라 태프트.

00:42:06.433 --> 00:42:07.766

가쓰라, 딱 봐도 일본 사람이죠?

00:42:07.866 --> 00:42:09.457

태프트, 미국 사람이죠?

00:42:09.557 --> 00:42:10.997

그들이 몰래 조약을 맺어요.

00:42:11.097 --> 00:42:12.578

이걸 가쓰라 태프트
밀약이라고 해요.

00:42:12.678 --> 00:42:18.664

가쓰라 태프트 밀약은 미국,
이제 조선 앞으로 일본이 통치할 건데

00:42:18.764 --> 00:42:20.847

너는 여기 필리핀이라는 나라 있지?

00:42:20.947 --> 00:42:23.120

필리핀 나라 통치하는 거
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.

00:42:23.220 --> 00:42:26.217
내가 조선 통치하는 거 오케이?
이렇게 한 거죠.

00:42:26.317 --> 00:42:28.845
그들끼리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고
오케이, 라고 해버린 거야.

00:42:28.945 --> 00:42:30.556
이거 혹시 공부한 사람 있나?

00:42:30.656 --> 00:42:35.235
우리가 미국하고 맺었던 조약이
1882년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죠?

00:42:35.335 --> 00:42:36.736
거기에 무슨 조약이 들어갑니까?

00:42:36.836 --> 00:42:38.493
거중조정이라는 게 들어가죠?

00:42:38.593 --> 00:42:39.938
거중조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?

00:42:40.038 --> 00:42:43.536
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
그 나라를 도와준다는 내용인데

00:42:43.636 --> 00:42:45.016
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죠?

00:42:45.116 --> 00:42:46.423
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?

00:42:46.523 --> 00:42:47.876
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리죠.

00:42:47.976 --> 00:42:49.414
그게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에요.

00:42:49.514 --> 00:42:54.465
즉 거중조정의 위반 사례로 나오는 게
바로 이 가쓰라 태프트 밀약입니다.

00:42:54.565 --> 00:42:56.818
되셨죠?
그거 봐주시면 좋겠고요.

00:42:56.918 --> 00:43:02.065
그다음 달 8월에는 제2차
영일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.

00:43:02.165 --> 00:43:05.114
2차 영일 동맹은 이런 것이죠.

00:43:05.214 --> 00:43:09.321
저기 가면 영국의 대표적인
식민지가 인도 아닙니까?

00:43:09.421 --> 00:43:11.374
인도, 우리가 하는 거 문제없지?

00:43:11.502 --> 00:43:13.408
오케이, 나는 조선.
이런 식으로 한 거야.

00:43:13.508 --> 00:43:15.424
자기들끼리 제2차 영일동맹.

00:43:15.524 --> 00:43:18.729
참고로 제1차 영일동맹은
1902년에 있었습니다.

00:43:18.829 --> 00:43:23.258
그걸로 이들이 러일 전쟁을
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.

00:43:23.358 --> 00:43:26.186
러시아랑은 포츠머스
조약을 맺습니다.

00:43:26.286 --> 00:43:28.674
어떤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이
종종 와서 물어요.

00:43:28.774 --> 00:43:30.174
선생님, 포츠머스가 어디 있습니까?

00:43:30.274 --> 00:43:31.376
미국 한가운데에 있어요.

00:43:31.476 --> 00:43:33.234
미국 지명이에요.

00:43:33.363 --> 00:43:34.922
그런데 왜 미국 지명이에요?

00:43:35.022 --> 00:43:36.189
미국이 부른 거야.

00:43:36.289 --> 00:43:37.959
야, 일본 너희도 전쟁...

00:43:38.059 --> 00:43:39.499
러시아, 너네 힘든 거 다 알아.

00:43:39.599 --> 00:43:41.522
너네 거기서 혁명도
일어나고 해서 너무 힘들지?

00:43:41.622 --> 00:43:42.394
여기로 와, 빨리.

00:43:42.494 --> 00:43:44.918
일본도 싸우지 말고 이리 와.

00:43:45.018 --> 00:43:46.059
우리 집으로 놀러 와서

00:43:46.159 --> 00:43:48.968

여기서 너희 하고 싶은 거 조약
빨리 맺어, 라고 한 거예요.

00:43:49.068 --> 00:43:51.689

포츠머스라는 지역은 미국이에요.

00:43:51.789 --> 00:43:53.592

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면서

00:43:53.692 --> 00:43:57.491

러시아가 한반도 문제를
그들이 손 떼기로 하고요.

00:43:57.591 --> 00:44:01.184

그다음에 홋카이도 위에
있는 섬이 사할린섬이죠?

00:44:01.284 --> 00:44:03.765

사할린섬 북위 50도 이남의
땅, 너희한테 줄게.

00:44:03.865 --> 00:44:05.438

이런 거까지 다 약속합니다.

00:44:05.538 --> 00:44:09.495

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
치욕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.

00:44:09.595 --> 00:44:13.936

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
승리했음을 확인한 조약이

00:44:14.036 --> 00:44:16.745

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었고
그러면 다 정리가 됐네요?

00:44:16.845 --> 00:44:19.512

미국과 영국, 일본은
같은 팀 먹었고요.

00:44:19.612 --> 00:44:21.778

청일 전쟁 싸워서 이겼고
러일 전쟁 싸워서 이겼죠?

00:44:21.878 --> 00:44:25.751

그러면 우리나라를
자체적으로 보호하거나

00:44:25.851 --> 00:44:29.715

일본으로부터 막아줄 수
있는 세력은 없었습니다.

00:44:29.877 --> 00:44:33.554

이 상태에서 그해 11월,
음력으로서는 10월이었고요.

00:44:33.654 --> 00:44:35.613

양력으로서는 11월이었습니다.

00:44:35.713 --> 00:44:40.106

을사조약, 을사늑약이
맺어지게 되었고요.

00:44:40.206 --> 00:44:45.071
이것을 정식 명칭으로 제2차
한일협약이라고 합니다.

00:44:45.171 --> 00:44:49.501
을사조약의 내용 두 가지는 정말
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?

00:44:49.601 --> 00:44:52.240
일단은 외교권이 박탈됩니다.

00:44:52.340 --> 00:44:54.517
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
조약을 맺을 때

00:44:54.617 --> 00:44:56.256
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주적
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

00:44:56.356 --> 00:45:00.905
반드시 일본의 동의 내지는 일본의
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.

00:45:01.005 --> 00:45:05.527
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기
위해서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.

00:45:05.627 --> 00:45:10.431
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
푸시다가 통감부라는 단어를 보시면

00:45:10.531 --> 00:45:17.062
이건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
시대구나, 라는 거 알 수 있어요.

00:45:17.162 --> 00:45:19.838
실질적으로 통감부가 설치된 건
그다음 해에 설치가 되는데

00:45:19.938 --> 00:45:23.713
어쨌든 통감부라는 말은 1905년에
을사조약이 있었기 때문에.

00:45:23.837 --> 00:45:26.847
그러고 나서 1910년 이후에는
이 통감부가 뭐로 바뀌니까?

00:45:26.947 --> 00:45:28.606
조선총독부로 바뀌죠.

00:45:28.706 --> 00:45:30.827
그것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45:30.927 --> 00:45:33.396
이러한 말도 안 되는,
실질적으로 사실

00:45:33.536 --> 00:45:36.038

우리나라 국권이 넘어가게
되었던 것이겠죠?

00:45:36.138 --> 00:45:38.803
이러한 을사조약의 내용을 보고
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

00:45:38.903 --> 00:45:42.008
개인적으로 저항했었던
사람들도 있었지요.

00:45:42.108 --> 00:45:44.740
또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.

00:45:44.840 --> 00:45:49.443
을사조약에 대해서 대응했었던
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.

00:45:49.543 --> 00:45:51.901
첫 번째, 민영환입니다.

00:45:52.001 --> 00:45:54.644
민영환은 당시에 잘
나가던 고위관료였었는데

00:45:54.777 --> 00:45:57.915
민영환이 나라를 빼앗겼는데

00:45:58.015 --> 00:46:03.849
어떻게 선비된 자로서 그냥
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나.

00:46:03.949 --> 00:46:09.559
나 하나라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
아니냐, 라고 한 다음에 자결해버립니다.

00:46:09.659 --> 00:46:14.266
이 민영환의 호가 충정공이예요.

00:46:14.366 --> 00:46:17.098
그래서 그의 이 뜻을 기리기 위해서

00:46:17.198 --> 00:46:21.609
지금도 서울 가면
충정로라는 길이 있죠?

00:46:21.709 --> 00:46:27.733
그게 바로 민영환의 뜻을 기리기
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.

00:46:27.833 --> 00:46:28.722
5적 암살단.

00:46:28.865 --> 00:46:34.324
을사조약에서 주된 역할을 했었던
이완용, 이지용, 권중현.

00:46:34.424 --> 00:46:40.501
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나철,
오기호 등이 조직을 했었고요.

00:46:40.601 --> 00:46:45.061

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.

00:46:45.161 --> 00:46:49.115

장지연이라는 이름이 약간
여성처럼 느껴지는데 남성이고요.

00:46:49.215 --> 00:46:52.408

그다음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
뜻이 뭐니까?

00:46:52.508 --> 00:46:55.516

이 날, 목 놓아 통곡하노라,
라는 뜻입니다.

00:46:55.616 --> 00:46:58.435

이게 어디에서 나왔었죠?

00:46:58.563 --> 00:47:04.360

이 시일야방성대곡이 나왔던 신문?
황성신문입니다.

00:47:07.078 --> 00:47:11.860

황성신문에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이
게재되면서 저항했다고 하는데

00:47:12.011 --> 00:47:15.108

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
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은

00:47:15.208 --> 00:47:17.805

을사조약하면 가장
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

00:47:17.905 --> 00:47:21.727

최근에는 사실 시험 문제에서
과거만큼 많이 안 물어봐요.

00:47:21.864 --> 00:47:23.056

왜 그런지 아세요?

00:47:23.156 --> 00:47:26.293

그 이후에 장지연이 약간
친일적인 행각이 있었다는 게

00:47:26.393 --> 00:47:29.089

최근에 연구 조사에 의해서
밝혀지게 되었습니다.

00:47:29.189 --> 00:47:35.800

상인들은 같이 장사를 하지 않는
철시라는 것을 감행하기도 했었습니다.

00:47:35.900 --> 00:47:39.465

뿐만 아니라 이런 대응 말고
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었죠.

00:47:39.565 --> 00:47:42.954

을사의병의 배경은 뭐니
뭐니 해도 을사조약입니다.

00:47:43.054 --> 00:47:45.924

주도세력은 최익현, 신돌석.

00:47:46.024 --> 00:47:51.840

신돌석 딱 듣는 순간 양반 느낌 안 나죠?
평민의병장이예요.

00:47:51.940 --> 00:47:54.227

그다음에 최익현.

00:47:54.327 --> 00:47:57.942

홍선대원군을 권좌의
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었던

00:47:58.042 --> 00:48:03.490

조선 최고의 자존심 아십니까?

00:48:03.624 --> 00:48:05.663

진정한 보수주의자인데요.

00:48:05.763 --> 00:48:09.128

최익현이 전라도 태인이라는
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요.

00:48:09.228 --> 00:48:12.381

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된다,
우리 목숨 걸고 우리 막아내자.

00:48:12.481 --> 00:48:15.569

의병 일으키자 해서 딱 갔더니
그 을사의병을 막고자

00:48:15.669 --> 00:48:18.610

우리나라 군대가 온
거예요, 관군이 온 거야.

00:48:18.710 --> 00:48:22.640

그러자 최익현 선생님이
뭐라고 그러시냐,

00:48:22.740 --> 00:48:24.633

차라리 일본놈들이 오지,

00:48:24.733 --> 00:48:28.746

어떻게 우리가 나라를
지키겠다고 의병을 일으켰는데

00:48:28.846 --> 00:48:31.034

하필이면 우리나라 군대가 오냐.

00:48:31.134 --> 00:48:34.828

너희랑 내가 싸워서 뭐하냐, 라고
한 다음에 전투를 거부해버려요.

00:48:34.928 --> 00:48:35.888

우리나라 관군이 오니까.

00:48:35.988 --> 00:48:41.306

그래서 쓰시마에 잡혀가셨다가
순국하시는 분이 최익현 선생인데

00:48:41.406 --> 00:48:49.268

최익현 선생이 그동안은
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

00:48:49.368 --> 00:48:53.157

내가 일본인들이 주는 음식을
먹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서

00:48:53.257 --> 00:48:54.655

곡기를 끊어서 자살한다.

00:48:54.755 --> 00:48:56.599

여러분, 이건 상상 못 하시죠?

00:48:56.699 --> 00:48:58.545

우리 학교 학생들이
제일 빠를 때 보면

00:48:58.645 --> 00:49:01.490

급식 먹으러 뛰어갈 때가 제일
빠릅니다, 축구할 때가 아니라.

00:49:01.590 --> 00:49:04.185

한 이틀 굶으면 난리 나죠?

00:49:04.285 --> 00:49:08.689

우리 학생들이 다른 건 잘
몰라도 급식이 늦게 나온다든가

00:49:08.789 --> 00:49:11.752

급식이 안 나오면 학교에서
폭동 일어납니다.

00:49:11.852 --> 00:49:13.422

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죠.

00:49:13.522 --> 00:49:18.371

그런데 이분은 굶어서 죽어버리는,
음식이 눈앞에 있는데.

00:49:18.471 --> 00:49:19.526

이게 가능하겠습니까?

00:49:19.626 --> 00:49:24.183

그래서 자기 절제력의 화신이다,
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었는데

00:49:24.283 --> 00:49:27.402

청춘의 완터뷰라고 제가 쓴
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?

00:49:27.502 --> 00:49:29.578

홍선대원군이나 김옥균, 유길준.

00:49:29.678 --> 00:49:34.471

이런 분들 쓸 때 원래 이 최익현
선생을 쓰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

00:49:34.571 --> 00:49:40.882

안타깝게도 굶어서 마지막에
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.

00:49:40.982 --> 00:49:46.689
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, 고종황제가
최익현 선생이 걱정되니까

00:49:46.789 --> 00:49:47.931
음식을 하사했대요.

00:49:48.031 --> 00:49:51.550
그리고 일본인이 야, 너 이거
너희 왕이 내린 음식이다.

00:49:51.650 --> 00:49:55.178
너 안 먹냐? 네 자존심
지킨다고 이거 안 먹어?

00:49:55.278 --> 00:49:56.995
네 왕이 걱정돼서 음식 줬는데?

00:49:57.095 --> 00:50:02.187
오히려 이게 더 불충한 거 아니야?
라고 하니까

00:50:02.287 --> 00:50:09.309
최익현 선생이 일주일 넘게 굶다가
그래? 그것도 맞다고 하게 되면서

00:50:09.409 --> 00:50:13.986
장기간 공복 상태에서 갑작스럽게
음식물을 먹다가 쇼크사한 거예요.

00:50:14.086 --> 00:50:17.180
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.

00:50:17.280 --> 00:50:19.374
그게 팩트니까 이건
어쩔 수가 없습니다.

00:50:19.474 --> 00:50:21.602
그래서 최익현 선생의 정식 사인은

00:50:21.702 --> 00:50:28.735
장기간 공복 상태 중 갑작스러운 음식물
섭취에 따른 쇼크사로 돌아가셨다.

00:50:28.835 --> 00:50:34.857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라고
하면 언제나 나오는 인물

00:50:34.989 --> 00:50:37.568
바로 이 연암 최익현
선생이었습니다.

00:50:37.668 --> 00:50:41.091
을사의병과 관련된다는 거
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50:41.191 --> 00:50:45.443
그다음에 을사조약 자체가
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

00:50:45.543 --> 00:50:49.274

고종이 마지막까지
인정하지도 않았고요.

00:50:49.374 --> 00:50:52.156

이게 법적인 절차적
문제도 있습니다.

00:50:52.256 --> 00:50:54.349

그렇기 때문에 헤이그,

00:50:54.449 --> 00:50:59.481

당시의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지역에
만국평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렸대요.

00:50:59.581 --> 00:51:00.986

거기에 특사를 파견합니다.

00:51:01.086 --> 00:51:02.506

이 특사 이름 정도는 기억해둡시다.

00:51:02.606 --> 00:51:05.238

이준, 이상설, 이위중.

00:51:05.338 --> 00:51:08.443

이준, 이상설, 이위중이라는
특사를 파견하게 되면서

00:51:08.543 --> 00:51:13.255

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만방에
알리라고 하게 되는데

00:51:13.355 --> 00:51:17.343

물론 이때 일제가 뒤에서
간섭을 해왔었기 때문에

00:51:17.443 --> 00:51:20.063

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.

00:51:20.163 --> 00:51:24.558

그리고 나서 이준 선생 같은 경우는
거기서 자결하기도 하시고요.

00:51:24.658 --> 00:51:27.697

이게 핑계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?

00:51:27.797 --> 00:51:30.407

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.

00:51:30.507 --> 00:51:33.131

그리고 나서 고종의 아들한테
왕위가 넘어가게 되고

00:51:33.231 --> 00:51:36.651

일제가 우리한테 한일
신협약이라는 협약을 강조합니다.

00:51:36.751 --> 00:51:40.983

이게 정미년에 있었다고 해서
정미7조약이라고도 합니다.

00:51:41.083 --> 00:51:43.459

고종이 퇴위 된 이후 우리나라
아무 힘이 없었겠죠?

00:51:43.559 --> 00:51:44.947

군대가 해산되고요.

00:51:45.047 --> 00:51:47.160

그다음에 일본인 차관이 임명입니다.

00:51:47.260 --> 00:51:49.188

이 차관은 돈을
빌려왔다는 게 아니라

00:51:49.288 --> 00:51:52.770

장관 다음이 차관이잖아요,
지금 우리나라도.

00:51:52.870 --> 00:51:57.823

무슨 무슨 체육부장관, 그 밑에
차관인데 높은 관리를 이야기해요.

00:51:57.923 --> 00:52:00.114

우리나라 관리인데
일본인이 임명된 거야.

00:52:00.214 --> 00:52:04.139

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권을 일본
애들이 장악하기도 했었다.

00:52:04.239 --> 00:52:06.020

우리나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

00:52:06.120 --> 00:52:08.555

고종이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돼서

00:52:08.655 --> 00:52:12.201

일어났었던 의병을 우리
정미의병이라고 하고요.

00:52:12.301 --> 00:52:19.894

정미의병은 기존에 있었던 을미의병과
을사의병보다 규모가 컸어요.

00:52:19.994 --> 00:52:21.999

왜 규모가 컸을까요?
간단하죠.

00:52:22.099 --> 00:52:23.431

군대가 해산됐다면서요.

00:52:23.531 --> 00:52:25.218

이 해산됐던 군인 다
여기로 온 거야.

00:52:25.318 --> 00:52:26.473

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고요.

00:52:26.573 --> 00:52:28.787

그래서 전국이 이
당시에 13개였는데

00:52:28.887 --> 00:52:34.996

이인영, 허위가 중심이 되는
13도 창 의군이 만들어졌었고요.

00:52:35.096 --> 00:52:36.679

여기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.

00:52:36.779 --> 00:52:43.889

의병을 모아서 의병 운동할 때 당시에
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공사관에

00:52:43.989 --> 00:52:47.274

자신들을 교전단체로서
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요.

00:52:47.408 --> 00:52:50.337

우리는 지금 반란이 아니다.

00:52:50.437 --> 00:52:54.073

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
군대와 일본군대랑 싸운 것이다.

00:52:54.173 --> 00:52:58.454

이거는 전쟁 중인 것이다, 라고 해서
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요.

00:52:58.554 --> 00:53:00.654

각국 영사관에 요구했었고요.

00:53:00.754 --> 00:53:01.936

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

00:53:02.036 --> 00:53:05.940

서울 진공 작전이라는
작전을 펼칩니다.

00:53:06.070 --> 00:53:08.314

서울을 다시 되찾겠다는 것이겠죠?

00:53:08.414 --> 00:53:15.443

그런데 이때 진공 작전 전날에
이인영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세요.

00:53:15.543 --> 00:53:21.074

이인영이 이 당시 13도
창 의군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

00:53:21.174 --> 00:53:27.443

살아서 다시 집에 돌아갈 생각을
못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?

00:53:27.543 --> 00:53:30.586

저였으면 한 번 더 어차피
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

00:53:30.745 --> 00:53:34.254

저도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지키기
위해서 아버지의 뒤를 따르겠습니다.

00:53:34.354 --> 00:53:37.037

이렇게 싸웠을 것 같은데
이인영이 이때 고민을 합니다.

00:53:37.137 --> 00:53:40.650
불효할 것인가 불충할 것인가.

00:53:40.750 --> 00:53:43.770
그런데 나 없어도 싸울
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

00:53:43.870 --> 00:53:47.270
나 없으면 우리 아버지 장례식은
누가 치러? 없지?

00:53:47.370 --> 00:53:51.529
미안해, 이려고 아버지
장례를 치르러 가버려요.

00:53:51.629 --> 00:53:59.154
그러니까 이 대장이 없어졌는데
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?

00:53:59.254 --> 00:54:02.758
그래서 지금의 구리
지역 일대에 모였었던

00:54:02.858 --> 00:54:06.481
13도 창의군이 서울로 넘어오다가

00:54:06.581 --> 00:54:08.429
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
실패하게 됐죠.

00:54:08.529 --> 00:54:11.582
지금도 구리에서 서울로
넘어오는 그게 망우고개거든요.

00:54:11.682 --> 00:54:15.451
망우고개 옆에 보면 13도
창의군 비가 있습니다.

00:54:15.551 --> 00:54:20.020
그런데 이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하고
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

00:54:20.120 --> 00:54:23.336
호남지역에 오히려 의병은
과거보다 더 많아지게 돼요.

00:54:23.436 --> 00:54:26.752
그래서 몰래 민가로 숨어들어서
일본 애들 때리고 도망가고

00:54:26.852 --> 00:54:28.506
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.

00:54:28.606 --> 00:54:31.158
그러니까 일본 애들이
화가 났나 봐.

00:54:31.258 --> 00:54:32.622

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

00:54:32.722 --> 00:54:37.437

의병이 일어났다는 지역만 있게
되면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에요.

00:54:37.537 --> 00:54:40.715

이걸 남한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데,
일본 입장에서 쓴 겁니다.

00:54:40.815 --> 00:54:44.168

이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고 하면
마을 전체를 불 질러 버려요.

00:54:44.268 --> 00:54:45.924

그냥 초토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.

00:54:46.056 --> 00:54:48.317

그렇게 되자 당시에
의병들은 어떻게 해요?

00:54:48.417 --> 00:54:52.332

아니, 의병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를
지키고자 이렇게 했던 건데

00:54:52.432 --> 00:54:57.298

이 지역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
이게 오히려 더 못 할 짓이다.

00:54:57.398 --> 00:54:58.425

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

00:54:58.525 --> 00:55:01.304

해외로 나가서 나머지
의병 활동을 이어갑니다.

00:55:01.404 --> 00:55:05.401

그래서 만주라든가 연해주 등지로
의병들이 이동하게 되면서

00:55:05.501 --> 00:55:07.954

1909년~1910년 이후에는

00:55:08.054 --> 00:55:11.826

오히려 해외 각지에서
우리나라 저항 운동이

00:55:11.926 --> 00:55:16.164

더더욱 빛을 바라게 되는
움직임이 있었어요.

00:55:16.264 --> 00:55:20.206

그다음에 1908년이 되었습니다.

00:55:20.306 --> 00:55:22.901

1908년이 되면서
아까 그 인물 있었죠?

00:55:23.001 --> 00:55:24.924

스티븐스, 어떻게
됐는지 궁금하셨죠.

00:55:25.024 --> 00:55:31.302

당시 스티븐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
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.

00:55:31.402 --> 00:55:33.615

조선은 미개해서
식민지배 해야 된다.

00:55:33.715 --> 00:55:35.460

오히려 조선인들이 그걸
더 원하고 있다.

00:55:35.560 --> 00:55:39.157

이런 말을 하고 다녔더니
장인환, 전명운.

00:55:39.257 --> 00:55:45.517

이 두 분이 찾아가셨는데 참 재밌고
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

00:55:45.617 --> 00:55:48.891

이 두 분은 전혀
모르시는 분이예요.

00:55:48.991 --> 00:55:50.454

일면식도 없던 분이예요.

00:55:50.554 --> 00:55:54.559

그러니까 각자 저 스티븐스
쓰레기, 우리 민족의 원수.

00:55:54.659 --> 00:55:56.105

각자 죽이러 간 거야.

00:55:56.205 --> 00:55:59.402

각자 죽이러 가서
샌프란시스코 기차역 앞에서

00:55:59.502 --> 00:56:02.781

장인환 선생이 총을 딱 쏘려고
하는데 총이 안 나가.

00:56:02.881 --> 00:56:05.597

그러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
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?

00:56:05.697 --> 00:56:07.166

다음 기회에, 이라고 빠지잖아요.

00:56:07.266 --> 00:56:09.953

장인환 선생은 그럴 수가
없는 거야.

00:56:10.053 --> 00:56:11.232

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

00:56:11.332 --> 00:56:14.214

그 작은 동양인이 스티븐스한테 가서

00:56:14.314 --> 00:56:16.851

충으로 내리찍고 육박전을
벌이고 있는 거예요.

00:56:16.951 --> 00:56:20.191

그러고 있을 때 뒤에서 또
다른 총 한 발이 날라옵니다.

00:56:20.291 --> 00:56:21.199

그게 뭐예요?

00:56:21.299 --> 00:56:26.587

이 두 분이 각자 스티븐스를
암살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보니까

00:56:26.687 --> 00:56:27.926

뭐야, 왜 싸우고 있어?

00:56:28.026 --> 00:56:29.898

스티븐스네? 기다려, 빵!

00:56:29.998 --> 00:56:30.812

이렇게 된 거예요.

00:56:30.912 --> 00:56:33.210

그래서 그날 스티븐스는
죽을 수밖에 없었다.

00:56:33.310 --> 00:56:36.458

이게 바로 조선의
힘이다, 저항의 힘.

00:56:36.558 --> 00:56:41.073

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보면 장인환
선생과 전명운 선생 같은 경우는

00:56:41.173 --> 00:56:45.958

그 이후의 삶이 상당히 경제적으로
궁핍하면서 힘들게 살아갔었다고 합니다.

00:56:46.058 --> 00:56:47.573

참 안타까운 일이죠.

00:56:47.673 --> 00:56:50.945

그 이후 1909년에는
기유각서라고 해서

00:56:51.045 --> 00:56:53.748

일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을
박탈하기도 했었고요.

00:56:53.848 --> 00:57:01.769

특히 이때,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안중근
의사의 의거에 의해서 사살되죠.

00:57:01.869 --> 00:57:03.454

이토 히로부미가 여러분,
중요한 인물인가요?

00:57:03.595 --> 00:57:06.822

왜 우리는 안중근, 안중근 하죠?

00:57:07.858 --> 00:57:11.634

이 파트의 내용을 보려면

00:57:11.734 --> 00:57:14.981

장동건 씨의 리즈 시절을 볼 수
있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.

00:57:15.081 --> 00:57:17.538

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
영화가 있는데요.

00:57:17.638 --> 00:57:19.533

그 영화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.

00:57:19.633 --> 00:57:26.222

어떤 내용이나 첫째,
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

00:57:26.322 --> 00:57:32.923

우리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을사조약의
전체적인 내용을 설계한 사람이에요.

00:57:33.023 --> 00:57:34.542

국제법을 전공했었고

00:57:34.642 --> 00:57:39.757

당시에 일본의 해외 침략에 브레인
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.

00:57:39.857 --> 00:57:45.926

그리고 나서 안중근 선생이
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나서

00:57:46.026 --> 00:57:54.728

일본은 약간 강경파들이 득세하게
되면서 한일 강제병합하고

00:57:54.828 --> 00:57:58.829

그 이후 식민통치하다가 더
확장으로 가게 되면서

00:57:58.929 --> 00:58:00.993

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
그들이 패망했다는 거예요.

00:58:01.093 --> 00:58:03.686

그런데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서

00:58:03.786 --> 00:58:07.673

만약에 이때 안중근 선생이
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지 못했다면?

00:58:07.773 --> 00:58:12.006

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.

00:58:12.106 --> 00:58:13.018

그러면 어떻게 된다?

00:58:13.118 --> 00:58:18.361

일본은 이때 무리해서
한일강제병합을 하지도 않고요.

00:58:18.461 --> 00:58:21.219

오히려 우리의 정신을
서서히 말살시킨 다음에

00:58:21.319 --> 00:58:24.528

지금 이 현재에는 대한민국이라는
나라는 없어요.

00:58:24.628 --> 00:58:26.777

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
패망하지도 않았고요.

00:58:26.877 --> 00:58:30.744

저는 그러면 류성완이 아니라
스즈키 이치로가 되어있었겠죠.

00:58:30.844 --> 00:58:32.170

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

00:58:32.270 --> 00:58:35.412

조선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
백제나 신라를 배웠던 것처럼

00:58:35.512 --> 00:58:37.124

하나의 지방정권하면서

00:58:37.224 --> 00:58:39.536

우리가 다 일본어 쓰면서
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.

00:58:39.636 --> 00:58:43.013

그런데 그 영화에는 그렇습니다.

00:58:43.113 --> 00:58:46.923

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
있는 타임머신을 발견해서

00:58:47.023 --> 00:58:50.162

지금의 역사로
돌려놓는다는 내용이에요.

00:58:50.262 --> 00:58:52.983

이 안중근 선생의
이토 히로부미 사살이

00:58:53.083 --> 00:58:55.484

얼마나 역사적으로 큰
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

00:58:55.584 --> 00:58:59.238

다시 한번 알려주는
그러한 영화였었고요.

00:58:59.338 --> 00:59:04.105

그다음에 대표적인 친일파
이완용을 이재명 의사가 가서

00:59:04.205 --> 00:59:06.398

집 앞에서 칼로 찌릅니다.

00:59:06.498 --> 00:59:07.550
너무 마음이 급해서.

00:59:07.650 --> 00:59:09.308
그런데 나쁜 사람은 오래 살아.

00:59:09.408 --> 00:59:11.440
또 이때 이재명 의거는
실패로 끝나요.

00:59:11.540 --> 00:59:13.594
수술받아서 살아나기도 하고요.

00:59:13.694 --> 00:59:17.473
그 이후 1910년 우리나라는
한일 강제병합으로 인해서

00:59:17.573 --> 00:59:21.118
조선총독부가 그 이후 설치되는
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

00:59:21.218 --> 00:59:25.159
이게 오늘날까지의 모습이었고요.

00:59:25.259 --> 00:59:27.732
전체적인 이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.

00:59:27.875 --> 00:59:33.853
한일 의정서 그해 1904년
2월에 체결되었었고요.

00:59:33.953 --> 00:59:37.963
그리고 나서 제1차 한일 협약,
여기서는 누구 있었다?

00:59:38.063 --> 00:59:40.524
고문정치 있었다고 했었죠?

00:59:40.624 --> 00:59:42.322
누구?
메가타, 스티븐스.

00:59:42.422 --> 00:59:48.691
그다음에 1905년 7월에 미국과
일본이 몰래 조약을 맺습니다.

00:59:48.791 --> 00:59:50.744
이걸 가쓰라 태프트
밀약이라고 하고요.

00:59:50.844 --> 00:59:53.132
그다음 달인 8월에
제2차 영일 동맹

00:59:53.232 --> 00:59:56.267
그리고 9월에 포츠머스
조약 체결되었었고요.

00:59:56.367 --> 01:00:00.445
그리고 1905년 11월에
을사조약이 체결되었었고

01:00:00.545 --> 01:00:02.912
1907년에 한일 신협약.

01:00:03.012 --> 01:00:04.813
그다음에 1909년에 기유각서.

01:00:04.913 --> 01:00:11.527
그다음에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이
체결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.

01:00:11.627 --> 01:00:13.370
이 흐름 기억해두셨으면 좋겠고요.

01:00:13.470 --> 01:00:16.232
이렇게 해서 1910년까지의
정치 파트는 다 끝냈습니다.

01:00:16.332 --> 01:00:21.356
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회 경제 문화
파트 한방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01:00:21.456 --> 01:00:22.540
수고 수고 많으셨고요.

01:00:22.640 --> 01:00:25.216
다음 강의에 더 기쁜 모습으로
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
01:00:25.316 --> 01:00:27.043
인사드리고 마칠게요.

01:00:27.143 --> 01:00:31.361
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~